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인류가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단위를 계기로 이맘때면 우리는 살아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특히 불자들은 인과와 참회와 회향을 생각한다. 짧게는 법회를 마칠 때도 우리는 '회향'으로 끝낸다. 회향정신은 남이 잘못한 댓가는 내가 받겠으며 내가 잘한 댓가는 남에게 돌리겠다는 자비정신의 극치이다. 그래서 회향은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년살이를 회향하면서 남에게 돌리는 공덕이 더 많은 사회이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지 주〉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려야 한다. 〈화엄경〉

시시각각 움직여서 밤과 낮이 잠깐 사이에 흘러가고, 하루하루 흘러서 보름과 한달이 번개처럼 가버리며, 한달 한달 지나가서 홀연히 일년이 다가오고, 일년 일년 흘러서 잠깐 사이에 죽음이 찾아온다.
〈발심수행장〉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惡)의 뿌리를 뽑아 버린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숫타니파타〉

참으로 재행은 무상하여 생멸(生滅)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생한 것은 또한 멸하니 그것을 윤이야말로 안락이구나. 〈대반열반경〉

삼매를 닦아 생각을 빛내라. 그러면 생각은 밝게 나타난다. 그러면 늙음과 죽음의 모습이 참되게 보이고 모든 법의 덧없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라. 〈잡아함경〉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루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싹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증일아함경〉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버린 것은 버려진 것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현재의 일을 이모저모로 자세히 살펴 흔들리거나 움직임 없이 그것을 잘 알고 익히라. 〈대가전연일아함경〉

"하루 하루가 다 좋은 날이지요.(日日是好日)"
〈벽암록〉



조계종 97년 '전법의 해' 지정

출·재가 1만여 지도자 대회 등 행사 다채
지방순회 조직강화…도시마다 교양대 개설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 해'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8일 전국교구본사주지 및 주요기관장 초청간담회에서 "내년 전법의 해를 맞아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전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지난 11월 조계사에서 개최한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의 성과를 확산시키기위해 내년을 전법의 해로 정했다"며 "종단사상 처음으로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국 불교지도자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내년 9월경 열리는 전법대회는 전국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전법의지를 다지고 불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일깨우는 자리가 될것이다"며 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원은 불교지도자 전법대회에 앞서 '전법의 해' 홍포를 위해 전국을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대전 충남북등 5개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순회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96년을 '불교 청소년의 해'로 정해 청소년포교 기틀을 세운 조계종은 내년 '전법의 해'로 정하고 5개년사업으로 △전국 도시마다 불교교양대학 개설 △불교회관건립 △전법대회 개최 △포교대상실시 △포교사 양성 △포교책자 발간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종은 '97년 전법의 해' 선정에 따른 기획안을 종정스님에게 보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내년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다.〈이준엽 기자〉

청주 BBS 지사장 박재선씨 임명

불교방송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서 불교청주방송 지사장 임명식을 갖고 지사장에 박재선씨(진흥건설 사장)를 임명했다.

이날 지사장 임명식과 더불어 개국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교청주방송은 지난 23일 오후3시 첫 시험방송 전파를 쏘아올렸다.

한민족공동체 성금모금 전개

조계종, 내년 5월까지…1월말 대대적 거리탁발

조계종이 남북한과 중국등포를 위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6일 총무원청사에서 '요익중생의 보살행을 전개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사업을 97년 5월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남북한은 물론 중국등에 수백만명의 절대빈곤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월주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기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해달음의 사회화운동 일환으로 결쳐지는 이번 모금운동은 △96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모금대법회 △오는 1월25일 '민족이 하나'임을 깨닫는 대대적인 동체대비 탁발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등이 전개된다.

특히 이번에 모금된 성금가운데 50%를 귀순자·탈북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용한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가동

문화재연구·사찰불사 심의…위원 19명 확정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불교문화의 전통계승을 위한 전문기구 '성보보존위원회'가 태동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8일 이달안으로 성보보존위원회를 구성해 성보보존관리의 기본 추진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성보보존위원회 1차 회의 후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모두 19명의 성보보존위원회 추천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효율적 성보관리 및 창조적 성보 조성 등을 취지로 하고 있는 성보보존위원회는 △성보조사 및 연구 △각 사찰 불사심의 승인 △성보·사적지의 조사발굴 및 복원 △성보 보호구역 지정·해제 △불교 유·무형 문화재 조사 및 발굴, 전승 등 성보보존관리 및 사찰불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사찰 불사 심의 승인의 경우 △사찰 신·개축 등 불교건축 분야 △탱화·불상·단청·사물 등의 불교미술분야 △사찰 경내의 조경 등 환경분야까지 망라돼 있으며,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보수 심의 승인도 관장토록 하고 있다.

〈본지 83호 13면·88호 6면참조〉

고속철 경주노선 '화천리'로

건교부 사실상 결정…불교계·문화계·고고학회 등 '환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역사(驛舍)를 두는 화천리노선이 경부고속철도 새경주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지난 18일 경주시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3백50여명의 학계 문화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를 통해 화천리노선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수길원장은 "경합을 벌였던 기존의 세 노선들은 제각기 결점을 내포하고 있어 위원들간에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며 "화천리노선 주변은 선도산과 벽도산이 남산을 가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화재 분포수도 10개소에 불과해 최적노선으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양원장은 또 "화천리노선은 총공사비가 2조8백47억원으로 기존의 3노선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이 양호하고 기존철도의 이설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화천리노선이 다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10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다.

그러나 새 대안 화천리노선은 건교부와 문체부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까지 동의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돌출하지 않는한 최종노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제1회 불교문학상 시 당선작

부처꽃 필 무렵

서춘기

흰구름산이 파르르바다쪽으로 미끄러져 내리다가
턱, 자루 긴 멈추어 선 자리 연 잎 피우 위에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집 하나 있었지
벗님도 아주 벗님이라 벗사람들은 말하다
연등을 붉게 꿀 피우는 그 집을 들여살아 벗집을 잡았다지
어느 때인가 푸하꽃 필 무렵 모두들 떠나다로 고기잡이 떠났는데
남해엘이 먹구름 덮다 심더니 비바람 몰아치고
집집이 날뛰는 파도 파도들…
목집 치마폭 펼어발기며 일승간에 바다가 미쳐 버린 거야
아 등불이 보이질 않아 집집이 보이질 않아
사리재 버린 벗집 위에서 자줏가슴 지백집하는
허지식들의 저 초롱한 눈망울 보이라

주렛소리에 놀라 스님께이 번뇌 눈 떴다지만 그게 아니야
기는워먹은 노스님의 깊은 참 배움 것
늙으막에 찾아온 그놈의 아노증이었지
밭은 아랫도리를 태풍 수습하고 나서 참드려 하는데
간혹 문살을 할퀴는 번갯불에 바람세상이 걱정이다 싶어
문밖으로 나섰더니 아뿔사 천지간이 온통 무명 세계라!
산도 바다도 이미 네 주실으 놓았으니
오욕의 살덩이들만 쥐리 없이 헤매는구나
노스님이 맹장로 달려 나가 놀라란 집집 마당에다
관솔을 쌓고 불을 지폈지만 거센 비바람이 가만 두지 않았지
불보시계를 토방으로 옮기고 다시 불을 붙였는데
들이치는 빗방울 때문에 그것도 허사였어
밤시 태프는바다목은 흔작을 다투고 있을 뿐데…
그 때 문득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떠올랐어
그래 바로 그거야 가슴위안은 스님이 태시시 찾으며
관솔더미를 법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지그시 심주 므고 태프는바다목을 굽어보시는
부처님 제신 자리에 장작더미 높게 쌓아 올리고 불을 지피니
아아 화염에 휩싸이는 대웅보전…

그렇게 붉고 큰 부처꽃은 처음이었어 난생처음이었다니까
간신히 새벽녘에서야 연에 아홉이 산록길으로 돌아와
흰구름산 아래 작은 포구에 닻을 내린 벗사람들이
부처꽃 필 때마다 두고 두고 말했다지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혜총 부산 감로사주지: 부산동성·성전·전포초등학교(6구좌)

〈12월 18일 현재 총 565구좌 접수〉


◇ 혜총스님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1년간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각계의 동참으로 총 573구좌가 접수됐으나 8구좌가 미입금돼 565구좌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기사 11면〉

현대불교신문사

제1회 불교문학상 당선작 발표 13면
도헌이 가족 자비행 '세밀 훈훈' 15면
96년 불교계 기자방담·화보 6·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사 설

불교교육의 轉機로 삼자

중앙승가대학이 승가교육 전문대학으로 정규대 승격 인가를 받고 이에 앞서 태고종이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허가를 낸 것은 향후 불교 인재양성을 위한 밝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더우기 천태종이 대전에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불교학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교육이 없다면 사회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진취적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불교계에 승가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승가대학은 오직 승려의 전인교육만을 위한 교육도량이기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승격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승가대학은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삭발염의한 승려의 기초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에 몇가지 기대와 전망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승가대학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가 주어지고, 복지학과는 1급 복지사 자격이 수여된다. 따라서 출가 군법사를 충원할 수 있고 불교 복지시설 경영에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출가 스님으로 신행적 기초 위에 전개될 불교학문의 발전이다. 물론 동국대학교와 지방승가대학에서 학문적 발전이 있어왔지만 중앙승가대학이 인가됨으로써 스님학자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불교학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스님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은 학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학문적 발전도 크게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실있는 전인적 수행자 양성이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승가대학은 이름만 갖추어 내세우지 말고 철저한 승가교육상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일반대학과는 학사일정과 교과과정 및 학사제도에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행승으로서의 태도를 철저히 익히게 해야한다.

통학생을 없애고 전원 수행관에 수용하여 주간은 교학강의, 야간은 좌선실수, 염불수행으로 인간의 틀을 수정하는 교육이어야 불교인재육성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승가대학의 학인은 개인적인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인에 대한 기대는 종단, 스승, 신도 모두임을 알아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승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학인이 주지를 하고 사찰의 부전이나 소임을 보며 스승의 개인적 시봉을 해야만 학비를 충당하여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고 본다. 학인은 학비에 부담없이 오직 학문수행에만 전념토록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곧 중앙승가대학의 내실있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종단과 학교, 교직자와 학인이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한편 중앙승가대학의 승격인가는 지방승가대학의 정규대 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교전통적 수행상을 지켜온 자부와 긍지를 가지며 정규대 승격을 위한 재단구성 및 교수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승가대 종단 교육관계자들과 열린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 교계는 위덕대 개교에 이어 중앙승가대 승격, 태고학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불교교육의 새 장을 여는 전기로 삼자.



◇지난 16일 연강홀에서 열린 '창작불교동요를 위한 사육제'.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들이 찬불동요 '화합의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열린마당

새싹불자들의 1996년

청소년포교는 미래불교를 일궈낼 동량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과제다. 따라서 본지는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연중캠페인을 벌였다. 조계종도 '불교청소년의 해'를 선포, 청소년문화대축제, 캠프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쳤다. 올 한해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새싹불자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웃위한 봉사 '큰 보람'

박민혜(청소년자원봉사센터)

금년초 청교련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찾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보람과 재미도 느끼게 됐다. 특히 약물남용캠페인, 탑골공원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활동은 의미 깊었던 활동중에 하나다. 모든 봉사가 즐겁고 보람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던 중 아주 보람있는 일을 하게됐다. '작은 자리'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학교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도 전화가 오는 곳은 20여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용인원이 적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애인을 돕는데 인원이 무슨 소용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겉모양만을 보지말고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수계받고 불자됐어요"

박혜숙(경남여고 2년)

올해 나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많은 스님과 친구 선배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결실이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 친구들과 의견대립으로 다투었던 것과 불교학생회 활동하느라고 일요일도 없이 나다녀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경주남산순례 '기억 생생'

홍하늬(부산 백산초등 2년)

한해를 되돌아 보니 많은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 중에서도 경주 남산순례에 참석한 것이 가장 생생하게 떠오른다.

오랫만에 엄마 아빠와 같이 산에 가니 좋았고 또래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 든든하고 기분도 좋았다. 비탈길이나 거친 바위를 올라갈때 힘들고 아슬아슬했지만 부처님이 우리를 반기고 있어 든든했다.

큰 불상이나 탑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산에 조상님들의 착한 마음이 가득들어 숨쉬고 있는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착하고 순진하니까. 내가 남산에 갔다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투정부리지 않고 맨앞에서 열심히 걸었던 것이다.

파라미타캠프 기대 못미쳐

이혁주(파라미타 청소년협)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다. 지난 여름 무주에서 열린 파라미타캠프도 그중 하나다.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께 어렵게 허락을 얻어 참여했으나 전반적인 운영은 기대에 못미쳤다.

특히 파라미타 회원으로 가입해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막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너무 일상적이었고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더운 여름만큼 짜증스러웠다. 게다가 화장실, 전기시설 등 야영지의 시설이 엉망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야영장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합창으로 부처님 전해요"

이보람(불교소년소녀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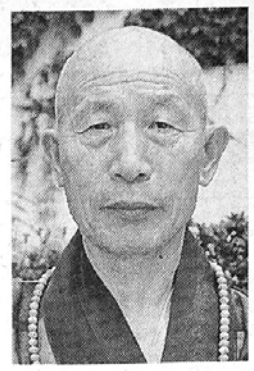
합창을 할때면 이 세상 무엇보다 재미있고 가슴이 벅차다. 합창에는 자연의 시가 있고, 어린이들의 꿈을 노래하는 우리들만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글들이 있다.

우리 합창단은 불교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합창단이어서 그런지 매우 바쁜 편이다. 일년에 큰 공연들이 여러 차례 있다. 이 큰 공연들을 마치고 나면 즐거움도 크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앞설 때도 많이 있다. 1천여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모든 단원들이 최선을 다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합창단의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다시 또 힘을 내고 늘 새롭게 시작한다.

"새싹포교 어떤 불사보다 중요"

인터뷰

운문스님(운문사 주지)



"조계종단에서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청소년의 해로 설정해 한해동안 각종 청소년포교 활동을 펼친것은 획기적인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찬불가 3백여곡을 직접 작사하는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활동을 펼쳐온 운문스님(운문사 주지)은 올 한해 청소년 사업을 평가하는 말로 불교청소년의 해 원년을 진단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새싹불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야 황무지가 개척되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스님에게는 올 '불교청소년의 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난 60년대 청소년 포교활동을 벌일 당시 '왜 법당에서 노래를 부르냐, 기도나 열심히 하지'라는 말을 숱하게 들으며 어렵사리 새싹불자 포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스님은 "새싹불자 포교야말로 중차대한 불사"라며 "금년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조계종단뿐만 아니라 천태 태고 진각종단 등으로 확산돼 청소년세상을 만드는데 사부대중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침 지난호(107호) 1면 2단기사 제목의 '… 수근수근'은 '수군수군'의 오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만평

박구원



"춥고 배고픈 심정 제가 알지요"

목어

인생의 황혼

한해가 저물무렵이면 사람들은 석양을 연상한다. 지는 해가 물들인 저녁놀이 아름다우면 인생의 황혼도 그럴텐데….

사람들은 늙기를 서러워한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의 시선도 그렇다. 노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연로한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내는 자식도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다. 최근 노인문제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가 75년 7.0%에서 96년 53%로 급증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전통가족 형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 황혼의 인생속에는 세파에 갈고 닦인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젊은이들은 그걸 못본다.

꽃구경가자며 고려장 지내러 가는 아들의 등에서 혼자 돌아갈 아들이 길 잃을까 염려하여 솔잎을 따 길에 뿌리는 노모. 그 마음을 볼줄 알고 배울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인정어린 사회를 가꿀 수 있으리라. 노인들이 푸근한 환경속에서 세월을 인정하고 늙음을 받아들일 때 후손들은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반조하고 또 앞을 예견하는 눈도 뜰 수 있다.

노인의 모습은 훗날 젊은이의 모습이다. 나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인생 황혼기를 곱게 장식한 노인들이 남긴 말을 음미하면서 병자년 한 해를 마무리 해보자.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는 사실을."(로드리스·68세)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덕분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 하나는 배웠소."(윈스턴 처칠·76세) "남은 날들을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괴테·80세) "어떠한 것도 늦은 때란 없다. 지친 심장이 고동을 멈출때까지는."(롱펠로·80세) "나무가 시든 잎을 떨구듯이 내 마음이 낡은 생각을 털어낼 수 있다면! 오 낙엽의 빛깔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앙드레 지드·77세) "화가에게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피카소·82세) "살아있는한 나는 글을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죽을 것이다."(버나드 쇼·91세)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남을 괴롭히면…

남들을 갖가지로 괴롭히면서 그것으로 제 복을 얻으려 하면, 도리어 재앙이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 많은 원한만나아 하리로다.

〈법구경〉

협찬 여수 석천사
주지 진욱
TEL.(0662)62-6882

생활속의 불교 (103)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파도에 시달리는 배가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 것은 복원력(復元力)이 있기 때문이다. 배가 좌로 기울면 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우로 기울면 좌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

모든 운동작용엔 반작용이 있다.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계는 다름아닌 복원력이다. 나로 하여금 바른 수행을 통해 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반작용인 것이다. 언젠가 내가 행하였던 신·구·의 삼업이 현실의 경계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게 내게 닥친 경계의 참 뜻이다. 선한 과보는 선한 과보대로 더욱 선업을 쌓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과보는 또 그대로 더 이상 악업을 짓지말고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일체 경계는 다 수행의 재료요 공부의 기회가 된다.

보왕삼매염불직지론서(보왕삼매론)는 이렇게 말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공부하면서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쳐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세어지지 않나니 마장으로 수행의 벗을 삼아라.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된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리되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써 원림(園林)을 삼아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갖게 되나니 덕 베푼 것을 헌 신처럼 여겨라.

이익을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아라."

보왕삼매론의 이같은 말씀은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사람이 일상 속에서 통하고 성취하는 것만을 좋아하다보면 도리어 막히는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장애 가운데서 보리의 도를 얻으셨다.

서양 격언에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이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다. 생활 가운데 거슬리는 경계가 오히려 나를 완성시키는 길임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역경계는 싫다하고 순경계만을 밝힌다. 그러나 역경계를 견뎌보지 못한 사람은 장애에 봉착했을 때 이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비탄에 잠기게 된다.

보왕삼매론은 열가지 경우를 들어 '바라지 마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빌고 바라고 해주기를 기대한다. 불보살의 원력에 기대어 소원성취를 빌고 발원한다. 그 바람이 지나쳐 소원은 숙원이 되고 염원·애원이 되다가 비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세밑에서 그 많았던 '바람'을 각자 마음 거울에 비춰보자. 그리하여 '막히는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이 있음'을 곱씹어 보자.

협찬 : 윤종화·김정자

'문화재보호' 최우선 선택

고속철 경주노선 '화천리' 결정 안팎

건설비 덜들어…지역주민도 환영

"불교문화 寶庫 남산 성역화해야"

4년여에 걸친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 노선논쟁이 건교부가 화천리노선으로 선회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화천노선이 급부상한 배경은 영남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분포 수가 방내리 35개, 안심리 26개, 덕천리 25개에 비해 화천리는 1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양수길)은 지난 18일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각 노선별 문화재분포와 사업비 교통연계성을 비교하고 화천리노선이 △남산경관보호와 문화재 최소 △고속철도 사업비 최소 △교통연계성 용이 등의 이유를 들었다. 〈표 참조〉

화천리노선에 대해 불교계와 고고학회는 반기고 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 사무국장 김형균씨는 "문화재파괴의 최소화와 남산경관보호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 노선결정 막바지에 이르면서는 남산경관보호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문화의 보고인 경주남산을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국불교재가회의를 비롯한 불교계 32개 단체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경주도심통과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백지화추진위는 경주통과 반대 지식인 77인 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에는 17만명의 서명부를 첨부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고고학회 임효재회장(서울대교수·고고학)은 "경주경마장 건설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경주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당초 93년 6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문체부안과 동일한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검토된 여러 노선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경주와 포항시민들도 대체로 화천리노선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주상공회의소 김동섭사무국장은 "고속철도의 경주노선과 역사가 어디에 설치되든 상관없이 경주시민들은 경주에 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빨리 결정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년여 동안 논쟁을 벌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입안단계부터 반영하지 못해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정부부처간의 갈등도 야기시켜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도 지적된다. 급기야 지난 5월 이수성 국무총리가 직접나서 "경제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가닥이 잡혔다.

건교부의 이번 제안은 문화재보호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많은 재원과 시간을 낭비했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날개를 가진 천칭의 균형을 유지키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가시화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을 크게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발정책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화천리 노선과 3개노선 비교평가

구 분	화천리	방내리	안심리	덕천리
역사경관 문화재보호	-남산경관 보호 다소 양호 -문화재 최소 (10개)	-왼쪽과 같음 -문화재 가장 많음 (35개)	-남산경관 보호 다소 양호 -문화재 중간 수준 (26개)	-남산경관 보호 불량 -문화재 중간 수준 (25개)
고속철도 사업비	-최소 (2조847억원)	-최대 (2조2,683억원)	-중간 (2조1,369억원)	-중간 (2조1,231억원)
교통연계성	-도로망 연계 양호 -기존철도 이설 용이	-왼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연장이 김	-왼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선형이 다소 우호	-왼쪽과 같음 -기존철도 이설 용이



고속철 노선관련 일지

▲92년 6월: 당시 교통부, 경주도심통과 형산강노선 확정
▲92년 11월: 문체부, 경주통과 노선도면 교통부에 요청
▲93년 6월: 문화재위원회, 건천노선 채택 요청
▲95년 3월: 문화체육부, 건천노선 채택 요구
▲95년 6월: 건교부, 문체부에 노선변경 불가 통보
▲95년 9월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경주도심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95년 10월9일: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불교계단체와 고고학회 등 102개 단체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 발족
▲95년 10월18일: 추진위, 국민서명운동 및 홍보 전단 배포 등 반대운동 본격화
▲96년 3월11일: 추진위, 17만여명의 서명부를 첨부 청와대에 청원
▲96년 5월15일: 경주통과 반대 지식인 77인 선언 발표
▲96년 6월8일: 정부, 경주통과 제3노선 선정 방침 발표
▲96년 12월18일: 건교부, 화천리 노선 발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북한의 식량난을 알리는 팜플렛을 배포하며 가두캠페인 및 모금운동을 실시했다.

"동포돕기 동참 복밭가꿉시다"

불교계 민족공동체성금 모금 의의

부처님 당시 '탁발' 재현…법회·바자회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 16일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운동은 국내의 절대빈곤자는 물론 북한과 중국동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으로 종단이 북한동포를 돕기위해 앞장선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움직임은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펼쳐졌었다. 불교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지난 12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창구가 단일화된데 이어 이번에 조계종이 북한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해 활기를 띠게됐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모금운동은 연말에만 진행되는 일회성행사가 아닌 지속사업으로 5월31일까지 계속된다. 먼저 2월말까지 종단산하 전국의 모든사찰에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 지난 여름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재민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내년 2월 27일에는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모금대법회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성금의 50%는 북한동포, 탈북자, 중국동포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총무원장을 비롯 간부스님들이 내년 1월25일 명동 서울역광장등 번화가에서 자선탁발을 실시한다. '민족이 하나임을 깨닫는 동체대비 탁발'로 명명된 자선탁발은 부처님 당시 탁발행렬을 재현해 일반에 전통탁발의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4월6일부터 9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수익금을 전액 성금으로 사용한다.

조계종도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차원으로 기획한 '종합지로창구 개설' '연꽃통장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민족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탁발'의 의미 탁발(托鉢)은 목숨을 발우에 기탁한다는 것으로 아만과 아집을 없애는 것이고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다. 탁발은 현재도 남방불교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비승려의 피해를 막기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에서 금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시 론

목적지 없이 뛰는 사람들



남 지 심
〈작가·우리는선우 공동대표〉

토끼가 나무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가지위에 매달려 있던 열매가 떨어져 토끼 머리를 때렸다. 그러자 토끼는 뭔가가 자기를 해치려 하고 있다 생각하고 뛰기 시작하였다.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던 다람쥐는 영문도 모른채 따라 뛰고, 토끼 다람쥐가 뛰니까 너구리 곰 오소리 늑대도 덩달아 뛰고, 이들이 뛰니까 사슴 기린 호랑이 사자 할것없이 모든 짐승이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들판에 있던 짐승들은 너나 할것없이 뛰고 또 뛰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뛰어갔다.

살아남기위한 무한경쟁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뛰다 그들은 서로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서로를 밀치고 넘어진 짐승위를 밟고 뛰고… 그래서 마침내 아수라장을 이루고 말았다.

그때 지평선 끝에 서 계시던 부처님이 두손을 높이 쳐 드시고 "어서 멈춰라. 여긴 낭떨어지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기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느냐? 너희들이 당도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고 물으셨다.

질문을 받은 짐승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뛰어왔지만 자신들이 왜 뛰어왔는지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불기 2540년 세모를 맞으며 한해의 마지막 지평선에 서서 나를 향해 나직히 묻고 계신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는 어디를 가기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느냐?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부처님의 질문에 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1년 365일, 거기에 몇십곱을 뛰어 왔지만 뛰고있는 방향도 뛰고있는 목적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부끄럽다기보다는 차라리 슬프다.

우리들은 한때 눈만 뜨면 새마을 노래를 들으며 살아왔다.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그런데 요즈음은 눈만 뜨면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속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는 주문을 들으며 살고있다. 병자년 한해도 그랬다.

이 주문은 비단 한국인한테만 내려진 것은 아닐 것이다. 미국인도 중국인도 아프리카인도 아시아인도….

지구라는 들판위에 살고있는 2백여 개국의 종족들이 저마다 이 주문에 걸려들어 남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서로를 밀치고 제끼면서 뛰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 국민도 자신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우리들은 지금 모두 무한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속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다녀야 한다고 훈계받고 있다. 그래서 산간벽촌에 있는 아이들까지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익히고 있다.

경쟁이란 힘들고 괴롭다. 긴장속에 갇혀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타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속에 묶여있어야 하며 또 자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초조감속에서 불안해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를 상대로한 무한경쟁으로 확대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달려가야 할 방향도 도달해야 할 목적지도 모른체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속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야 한다는 주문만 외우면서 달리고 있는 우리들, 이 미치광이 경주를 멈추게 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뛰는 짐승들을 보고 덩달아 뛴 사슴이나 호랑이 사자는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우리중 어느 누구도 "어서 멈추어라. 여기는 낭떨어지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기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뛰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고 우렁차면서도 간절하게 외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삶의 방향타 조정하자

종교인 역할은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세상인들보다 한발 앞서서 세상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물질과는 상관없이 초연하게 본분을 지키고 살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돌아와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하는 삶의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모두가 첨단,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누군가 뒤에 물러서서 잃어버린 고향을 복원시켜 주는 또하나의 불교운동을 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탐탐이 빈 가슴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일을 하는 진인이 나타난다면 그의 그늘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慶 정규대학승격 祝

한국불교의 희망, 한국의 나란다 대학!!

중앙승가대학교

대한불교 조계종단과 중앙승가대학의 오랜 숙원인 정규대학 승격이 지난 불기 2540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정규대학 승격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여 21세기 사회를 선도하고 한국불교중흥을 이끌어 갈 선지식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기 2540. 12. 11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송월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방지하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신무상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봉은사·개운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소쩍새마을)

정규대학승격 ····· 중앙승가대학교

법회 안내

덕암사(02)451-459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법안정사(02)646-497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금선사(02)395-9911

신중기도 매월 1~3일 오전10시
목정글법당 인등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보원화법회 2, 4주 일 오후3시
철야기도 매월 7일(음) 밤 10시

연꽃피는 절(062)943-0108

정기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 18일 오전10시30분
거사법회 매월 첫째주 오후7시
(선학강좌)
관심선법 좌선회 매주 토 저녁10시

광성사(051)234-2468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계사포교원(0343)95-6311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화엄산림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
경전공부 매주 목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범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미야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 오후8시

영덕사(032)502-2836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기도 매월 1~3일(음)오전10시
조상천도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 오전11시
매주 토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0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주 토 오후8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진제스님-랭카스터교수 대담

"경전 전산화 21세기 불교부흥 초석"

"인간정신 황폐화 생활불교로 치유가능"



◇랭카스터교수는 진제스님과 대담을 가진데 이어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학과 전자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세계적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 세계불전 전산화협의회 의장)와 한국의 선승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이 지난 13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만났다.

랭카스터교수는 이날 진제스님과의 만남에서 현대문명과 종교, 한국불교의 특징과 전망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진제=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불교를 접할 기회가 많을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 반갑습니다. 한국불교의 특색과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군요.

랭카스터=한국불교는 뿌리깊은 전통과 함께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의 기풍이 널리 확산돼 있고, 통일된 교단과 비구 비구니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불교부흥의 잠재력이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은 무엇보다 한국적 선의 기풍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선수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제=물질만능의 풍조로 정신세계가 황폐화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참선을 하게되면 모든 번뇌와 망상 불안 등이 봄에 눈녹듯 사라져 참된 인간성을 찾게돼 모든 시비와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하고 수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짧은 식견입니다만, 생활선의 실천수행못지 않게 교수님께서 추진하시고 계신 불전 전산화 역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필수 영역이자 우리가 이뤄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랭카스터=불교의 전산화는 불교연구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켜주고, 불교인들에게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정보 음성정보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불교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 입니다. 전산화는 최근들어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불교를 다시 반전시켜 불교부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진제=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전산화같은 새로운 기술이 다가올 21세기 미래 불교계에 어떤 환경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랭카스터=다가오는 새시대에는 모든 종교들이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교학자로서 제가 불전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세계적 표준화를 모색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불교가 좀더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수행과 포교뿐 아니라 정보의 표준화와 전산화에 힘을 기울이신다면 불교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편, 랭카스터교수는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초청강연에서 '불교학과 전자기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경전전산화가 가져올 불교학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진단하면서 경전전산화는 불교의 '새로운 서술전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통일차관과 남북관계 환담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지난 18일 김석우 통일원차관의 예방을 받고 남북관계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김차관은 종교계의 북한돕기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청소년 지도' 문체부 장관상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난 14일 한국청소년협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미래찾기 다짐대회'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한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대불련 35년차 회장 고영삼군



지난 14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회에서 고영삼군(수원대 법학과 3년)이 제35년차 회장으로 선출됐다.

"통일사업 힘쓸터"

고영삼회장은 '열린마음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35년차'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열린 통일법회 △정보화체계 구축 △대불련 혁신사업등을 바탕으로 대불련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근〉

불교청소년의 해 회향식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은 지난 18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불교청소년의 해 회향식을 가졌다.

'거룩한 만남' 장학금 전달



자용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회장스님은 지난 20일 조계사 앞 샘터다방에서 일일찻집을 열고 불교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팀에 장학금을 위임 전달했다.

불교미술작가 초대전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는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포교원 특별전시실에서 제3회 불교미술작가 초대전을 갖는다.



'자랑스런 신한국인' 뽑혀



종운 해원사 주지(사진 위)와 종실 대전연화사 주지가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자랑스런 신한국인으로 선정됐다.



파라미타 수행원서 음악회

송암 도안사 주지는 지난 24일 안성군 죽산면 도안사에서 파라미타 수행원개원기념 송년음악의 밤을 가졌다. 이번 음악의 밤에는 임동창 장사익 쟁이골 사람들 등이 출연했다.

'선문학과 벽암록' 출판회



정광수 시인(계간 '해동문학' 주간)은 문학평론집 〈선문학과 벽암록〉 출판기념회를 지난 20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참회록 '어머니의 등불…' 출간



양동수 법사는 오는 26일 대구 비슬산 사형수 무연고 묘지에서 참회록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한국경제신문 刊)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게시판

알림 **청소년 열린축제**=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한 행사 '청소년의 열린 축제'를 오는 27일 오후2~4시 연다. 장소는 복지관 대강당이며 대상은 중·고교생이다. 내용은 팝댄스 경연대회, 건전가요제, 성교육 강좌, 레크리에이션 등. (051)361-2063

제2회 겨울철새 먹이주기=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오는 29일 고령군 아산면 낙동강에서 제2회 겨울철새 먹이주기 운동을 갖는다. (053)474-8228

답사 **문화기행**=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은 오는 31일~1월 2일 백두대간 답사를 실시한다. 답사지는 대관령 국사당, 경포대 일출기원제, 강릉 객사문, 동해 등명낙가사, 송천 떡마을 등. 참가비는 135,000원 (02)712-5812

새해맞이 등반대회=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31일부터 97년 1월 2일까지 설악산 백담사와 봉정암 일대에서 새해맞이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738-3386

강좌 **불교수행학교**=서울대 청정회(회장 윤종국)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불교수행학교를 실시한다. (02)880-8627



파라미타 부산지부 창립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지난 1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청소년포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스님과 교계지도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부산지부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지골수련원에서 수련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2월중 지도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96 범불교 단체지도자 송년모임 행



범불교단체지도자 송년모임

백두산 미륵부처님조성불사 봉행위원회(대회장 경우)는 지난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범불교단체지도자 송년모임'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지난 11월 28일 중국정부와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내년 8월 29일 미륵불을 봉안할 계획이다.



'한민족 불교중흥회' 현판식

민족분단의 비극을 치유하고 한민족 중흥을 위해 불교도가 앞장서자는 '한민족불교중흥회(상임대표 혜창)'가 지난 19일 종구로 수송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6월부터 창립을 준비해온 한불회는 이날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에 앞서 사무실을 개원했다. 한불회는 내년 3월 창립 예정이다.



불교사회봉사회 심장병 수술비 지원

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 지도법사 원타 천축사주지)는 지난 17일 원효정사에서 심장병 및 백혈병어린이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불교사회봉사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이 서울지역 사찰에서 차공양으로 번 돈과 일일찻집 수익금 등 1천만원을 백미경(11) 구소현(4) 등 11명의 심장병 백혈병어린이 수술비로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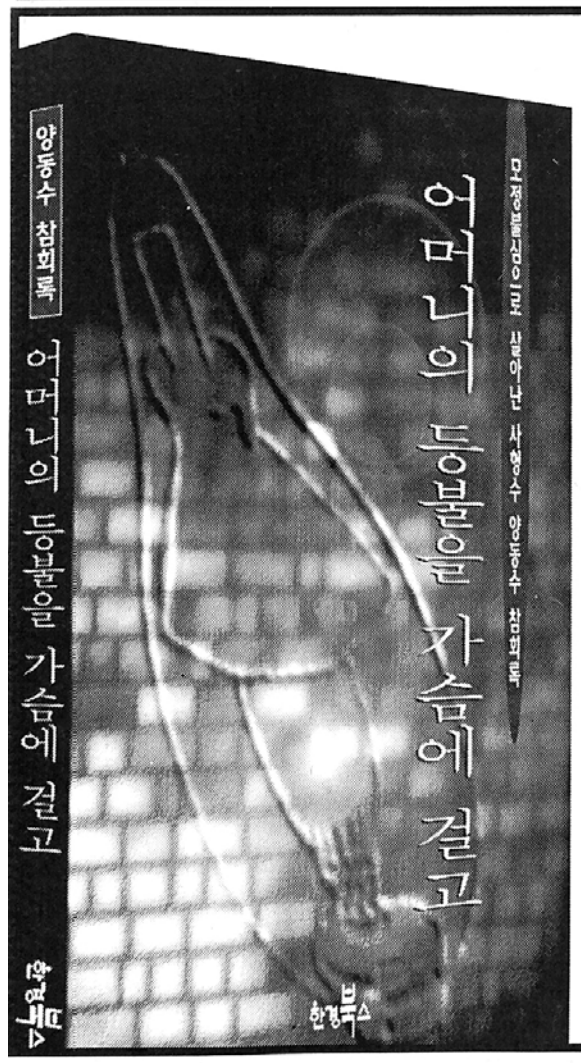


광주불교사암련 불교합창제 성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17일 남도예술회관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광주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합창제에서는 향림사 증심사 화엄사 선덕사 한마음선원 등 5개사찰 합창단이 동참하여, 음성공양을 펼쳤으며, 수익금 3백만원은 송광복지관 우산복지관 화순 쌍봉사 호산마을에 전달됐다.

한경북스·韓國經濟新聞社 출판영업부 312-0063, 313-8293 / 출판부 3604-556~8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바로 그 어머니, 그 사형수!

사형수의 몸이었다가 21년만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양동수 법사가
그를 살려낸 어머니의 영전에 바치는 책! MBC 법창야화 〈모정불심〉의
주인공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참회록!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로 내일의 삶이 없는 사형수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저자가 노모의 헌신적인 자식사랑에 감동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면으로 살아 나기까지의 피눈물나는 참회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수백 권의 도덕 교과서가 무색한 위대한 모정의 힘을 느끼게 한다.
자식의 죄과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뼈에 꿀을 발라
까막까치밥으로 뿌려달라는 마지막 보시를 하고 이 땅을 떠난
그 어머니의 등불이 영원토록 이 땅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당신의 영전에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어머님 덕분으로 이런 책자라도 낼 수 있는 저의 행운을 기꺼워하면서
항상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항상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어머님의 영전에 바치는 책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 참 즐겁고
고맙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바치는 저의 반성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저의 연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이렇게 세상에 내놓습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양동수 1950년 경남 사천에서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남
75년 12월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수로 대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함.
어머니는 담 옆에 방을 얻어 하루도 떠지지 않고 매일 1번씩 면회를 옴.
MBC라디오 법창야화에 '모정불심'으로 드라마화 됨. 78년 무기수로 김형의 은전을 받음.
서예대전에서 다수 입상하고 인쇄기사 2급 자격증을 땀. 불교 통신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12인연법과 현대과학의 증명〉이라는 논문으로 법사 자격증을 땀. 96년 2월 17일 모범수로 21년만에 가석방됨. 〈지비선행회〉를 만들어 일요일마다 부산 대청공원에서 불우한 노인에게 떡과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리라고 하신 어머니를 그리며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 닿는 대로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속죄의 길을 걸으려고 함.

'母情佛心'으로 살아난 사형수 양동수 참회록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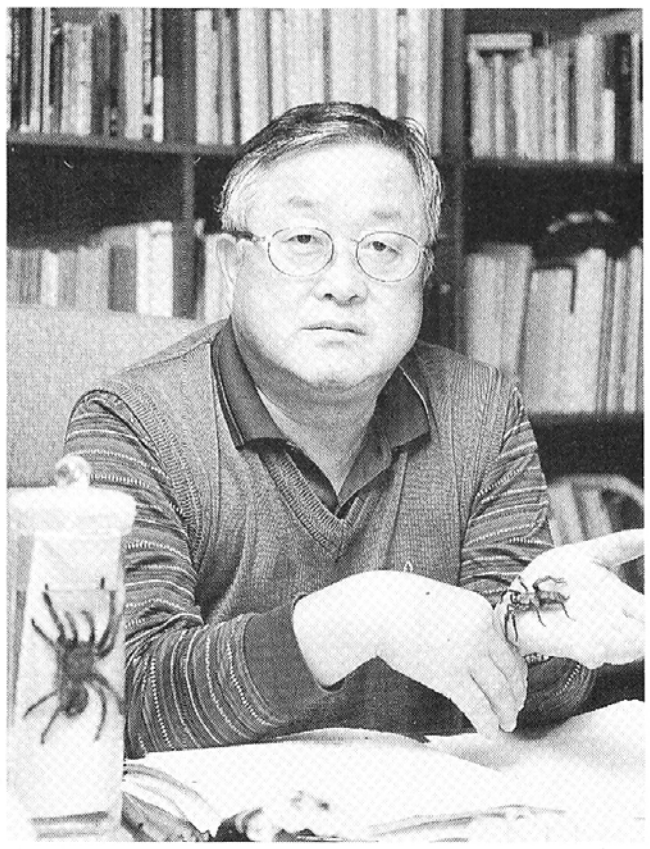
◉신국판/310면/값 6,500원



"거미연구 인류와 자연사랑"

산문밖의 禪

거미연구소 김주필 소장



생활공간에서 쉽게 만나는 거미. 혹이라도 거미를 징그럽거나 무섭다며 멀리하는 이가 있다면 동국대 응용생물학과 김주필교수(54·한국거미연구소장·02-294-8900)를 찾아보라. 그를 만나면 악의 상징이 아닌 인간의 동반자로서 거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언제나 '거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미는 해충을 먹고 사는 절지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양을 소화하는 포식성동물입니다. 거미를 이용하면 벼농사를 지을때 농약사용량을 65%나 줄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에게 가장 친하다는 개는 광견병을 옮기지만 거미는 질병을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를 없애줍니다. 그런데도 거미는 푸대접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이룬 농약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해충뿐아니라 인간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해 천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충을 잡아먹는데 거미를 따라갈 천적은 없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거미를 연구하는 동호인의 숫자가 선진국의 척도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2천5백년전, 부처님은 유정·무정 할 것없이 모두 불성이 있다며 더불어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식량확보를 위해 농약을 발명했고, 무차별 사용으로 곤충을 몰살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곡괭이로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자연이 살 수 있는 대안으로 거미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김교수의 거미예찬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초반, 서울대 동물학과에 재학중이던 김교수는 문득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는 발원을 세웠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했던 당시에 환경파수꾼 거미는 더없는 연구대상이었다. 인류에 유익한 동물가운데 개척해야할 분야에서도 거미연구는 특별한 장비없이 '몸으로 때우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선승이 한 소식했을 때의 희열은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저에게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거미가 되겠지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거미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곧 선승의 깨달음 아닐까요."

김교수가 드는 화두의 장애는 고독이다. 30여년 거미를 찾아 전국방방곡곡을 헤메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밀려오는 것은 혼자서 외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선승에게도 스승이 있어 기댈 곳이 있는데, 거미라는 화두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미개척 분야를 헤쳐간다는 것은 힘든 만큼 보람도 있다. 10년전 4백여종이었던 한국의 거미가 6백여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김교수가 발로 뛰며 찾아내 학계에 보고한 것이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거미가 1천여종으로 추정돼 김교수의 고독은 계속되고 있다.

벼농사·산림보호 유익한 환경파수꾼
사재털어 외길개척…최고장애는 고독
신종찾은 희열 선승의 깨달음과 비슷
"한반도 서식 1천여종 다 찾겠다" 서원

"거미란놈은 참으로 용한 동물입니다. 사회생활이 아닌 단독생활을 하는데 서식밀도를 잘 조절해요. 수요·공급의 법칙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먹이 때문에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먹이가 걸려들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이 있다. 최초의 거미가 3억년전에 나타났고 거미의 먹이인 파리가 1억5천만년전에 등장했으니 파리를 먹기위한 거미의 기다림은 시간을 초월한다.

거미의 모성애는 인간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 단풍이 한창인때 나무기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당거미를 살펴보라. 외부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난괴를 만들고 날이 추워지면 난괴를 꼭 껴안고 그대로 겨울을 난다. 날이 풀려 4백여개의 알이 깨어날때면 어미는 미이라가 되어 산산이 흩어진다. 어미의 희생으로 새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러한 거미의 생태를 접할때마다 생명에대해 경외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곤한다. 후학들에게도 생물학으로서의 거미보다는 거미의 생태를 통해 자신을 반조할 것을 강조한다.

최근 벼농사는 물론 산림을 복구하는데 거미를 이용하는 연구가 속속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거미줄을 이용한 생활용품개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모두가 선진국에서 국가적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84년 김교수는 더 이상 정부가 해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 사재를 털어 한국거미연구소를 만들었다. 왕십리 대영E.M.I학원 지하에 자리한 연구소에는 상근연구원 5명을 비롯 60여명의 연구원이 거미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대영학원은 젊은시절 학원강사로 유명세를 받던 김교수가 마련해 운영하는 학원이다. 막대한 연구소 자금은 학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교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거미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거미교실을 열고 거미에 관한 저술작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교수는 요즘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거미채집에 나선다. 산속을 뒤지다보면 사찰에서 숙식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언젠가 사찰에서 만난 불자가 넌지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저는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살생하기 위해 절을 찾았으니 어떤 연고입니까."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할뿐이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미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교수. 그에게 거미채집은 '더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생'임을 누가 알 것인가.

이준엽 기자

왜 윤회를 하게되지요

문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 그 자체인데, 그래서 부증불감 불구부정이요 무무명이라 하는데 어째서 무명때문에 타락하여 윤회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명숙·경북 포항시 대신동〉

답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시초, 바로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무시이래'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온 곳이 있어서 흘러갈 곳이 있고 공간은 그 크기가 정해진다고 말입니다. 질문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것도 어떤 모양새가 있거나 어떤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불성이란 말로하자면 일체의 근본이요 우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체나 크기가 있는게 아니니 늘거나 준다는 말이 해당되질 않습니다. 또 형상으로 그려볼 수 있는게 아니니 물이든다 안든다는 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사들은 굳이 말하라면 그냥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형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느냐고 하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이름지어서 그냥 한마음이요 그냥 부처요 진여요 진리요 도요… 뭐라해도 좋습니다.

일체만물은 그 불성을 근본으로해서 가지가지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시작없는 시작으로부터 인연따라 나툰 것인데 마치 허공에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하듯이,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다가 녹곤 하듯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투기 전과 후가 다르냐하면 그것도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은 여여한데 현상계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니 상으로 보고 듣고 하는게 다 환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인연도리, 연기법이 있을뿐이라서 일체는 근본이 공인 것이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안생겨요

문 일체가 둘이 아니기에 내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지도해주신대로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누구인가'를 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나질 않아서 그것도 놓고있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또 언젠가 예수재는 무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정여진·경기 광명시 하안동〉

답 공부하는데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사무치지 않으면 견성이 되기 쉽지요.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하는게 간절하고 지극한 것이냐를 따지려 할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극하고 어디까지가 견성인지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그것 또한 번뇌망상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놓아 버립은 잘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무친다하는 것은 돌에도 피가 배일 만큼의 진한 정성을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삼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상사병이 난 사람이 임을 그리워하듯 그렇게 내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야 이 공부는 맛도 보고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왜 나는 그렇게 안될까 염려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놓았으니 이제 없고 주인공 너만이 있고 너만이 다 하는 것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간절한 것도 네 몫이요 간절하지 않은 것도 다 네 몫이다. 나는 다 놓아버렸으니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다'하고 몰락 놓으면 그게 간절한 것이고 사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놓는다 놓는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상 놓는다면서 놓아진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놓아지는가, 내가 놓기는 놓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놓아진 것인가 하고 군더더기로 많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놓을 양이면 몰락 놓으라고 했지,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라고 했지 놓아졌는지 안놓아졌는지 그런 것 따지라고 했습니까. 몰락 놓고 가세요.

또 무통장입금이라는 것은 유의 통장이 아닌 무의 통장을 말한 것입니다. 은행에 통장만들어 놓고 돈을 예금하듯이 내마음으로 무의 통장에다 저금을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먹은 마음이 없이 무주상으로 하면 무통장의 예금고는 쑥쑥 늘어날 것이지만 요렇게하면 공덕이 된다더라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히틀러나 日王은 어떤 과보를…

문 실수로 인명을 살상해도 무한과보를 면할 수 없다하는데 히틀러나 日王 유인같은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을지요?
〈익명의 독자〉

답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려면 오늘의 나를 보고 미래의 나를 알고 싶거든 지금의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한 짓이 산 생명을 죽이고 짓밟은 것인데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니 어떤 과보를 받아야 마땅할지는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청암사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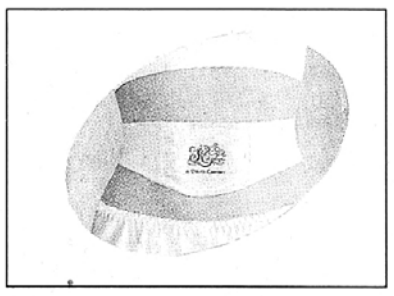
- **모집학과** : 사미니과
- **모집인원** : ○○명
- **편입생 지원자격** : 타 승가대학 휴학기간 2년 경과한 자
-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②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④ 본인(법명) 도장, 사진 (3x4Cm) 4매
- **준 비 물** : 가사장삼(오조), 필기도구
- **전형일시** : 1997년 1월 18일 (음력 12월10일) 오전 8시
- **도착일시** : 1997년 1월 17일 (음력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 **연 락 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0547)437-0038

☞교통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 오전 -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 오후 - 12시 50분, 3시, 4시 30분, 6시 50분

청 암 사 승 가 대 학 학장 지 형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96년 불교계 결산

주요종단 살림 점검

교육강화등 개혁틀 구축 혼신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



금년은 개혁종단 출범 둘째해로 승단과 재가, 집행부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완성을 위한 '토대만들기'에 혼신을 다한 해였다.

주목할만한 업무로는 중앙종무기관의 기능을 분야별로 현실성있게 배분,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승·재가 교육강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전개등 시대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위해 앞장섰다.

특히 김대통령 군교회예배파문으로 빚어진 불교편향정책, 신학대학원설립추진, 불교관계법 개정 등 굵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는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 포교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

개혁의 완성을 위하다보니 일을 산만하게 펼친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신도회결성이 지지부진하고있는 것도 안타까운일이다. 잘못된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아쉬움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해본다.

동방불교대학 법인 인가 '성과'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우리 종단을 돌아보면 종립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법인 인가를 낸 것이다. 그 반면 한국불교 근대사의 산증인이셨던 서봉큰스님께서 열반하시어 불자들로 하여금 많은 안타까움을 남겼다.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의 일환으로 본종에서 개최한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성공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 행사가 한일 공동개최와 더불어 전종도와 더불어 보람을 느꼈다.

또한 태고총림 선암사에 본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암큰스님께서 방장으로 추대되신 큰 경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던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에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새해에는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발전은 물론 불교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한중일 유대 동북아평화 앞장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



96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종단의 위상강화와 활발했던 국제교류가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5월15일 천태종의 발원지인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서 개최됐던 한중일 천태대사 열반 1천4백주년 추모법회와 10월1일 일본 히예산에서 3국 천태종도들이 황금유대를 기반으로 천태대사의 말씀에 따라 학술문화연구 세계난민구제 동북아시아평화에 나서기로해 세계평화구현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종단적인 보람이라면 서울의 관문사를 비롯하여 울산 정광사 진주불교회관 충무 서광사 원주 청소년수련원 등 지방의 대형불사가 무엇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도의 급증가와 12월 12일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으로 교리연구를 위한 발판과 천태사상에 입각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반면 아쉬움이라면 눈코뜰새없이 벌어지는 일들속에 파묻혀 지내다보니 제대로 사업을 추스르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켠에 미련으로 남는다.

위덕대·대구문화회관 문열어

진각종 총무부장 진산정사



진각 50년(불기 2540)을 맞은 올해 본 종단은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종단으로서의 창종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용맹정진한 한해였다.

종단내적으로는 각해총인의 법통승수로 종단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정각 대종사님의 열반비탑제막과 사리봉함 불사는 종단체계와 신심을 다지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외적으로는 종조님의 재세시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립위덕대학교가 지난 3월 개교하여 종단의 이미지 고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구진각문화회관의 헌공으로 대구불교방송국의 개국에 기여, 대구·경북지역의 불교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축년(진기 51년)이면 본 종단이 창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불법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이타자리를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과 제2창교적 도약을 위해 용맹정진하여 창종 50주년을 맞이하겠다.

"사찰환경 지키기 佛心 하나로"

다시 평가와 전망의 시점에 섰다.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파문으로 정치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한해를 열었다. 조계종 개혁호의 순조로운 운항,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의 변모움직임이 굵직한 흐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올해는 '환경의 해'였다. 해인사 옆 골프장건설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50여 사찰이 '개발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교 교육 문화 신행면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어느때보다 분주한 한해로 평가된다.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96년 불교계를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 올해 불교계는 사찰환경훼손의 심각성에 놀라고 대책미련에 분주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사부의 조사에 따르면, 해인사골프장 건립, 봉은사 아셈행사장 건립, 선암사앞 아파트 건립 등 정부와 지방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에서 50여개의 사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에따라 11월22일 3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찰환경보존위원회을 구성했습니다.

중앙신도회 창립 해넘겨

○… 올 한해 조계종은 개혁종단으로서 안정과 화합을 꾀하기 위해 제도개혁, 종무행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체제 확립, 포교활성화에 주력했다는 평입니다. 특히 인사고과제 실시 의제법개정추진 분담금재조정 법률서비스실시 종무원포살법회 등은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들로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종단차원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불교계를 분노케한 '1·21 김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파문'에 불교계는 즉각 특별진상조사반을 구성, 종교편향정책 재발방지와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방하고 비서실장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으나 대통령부터 말단공무원까지 자행되고 있는 종교편향정책의 근본적인 시정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 국회정각회가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불교계 숙원사업인 불교관계법 개정은 그동안 조계종이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번에 3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되면서 법개정을 앞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찰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창립은 올해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교단을 구성하는 4부대중 가운데 재가 2부중의 역할은 여전히 모색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교구신도회를 기반으로 내년 초파일 이전에 창립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행단체의 활발한 연수도 올해를 특징짓는 움직임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충북괴산 다보수련원 개원을 기해 전국의 신행단체대표자 연수가 두차례 열렸고,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자들의 조직화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계종을 제외한 여타종단들의 올 한해의 움직임은 '군소종단' 또는 '사회현실 참여에 미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종단내부의 체계화와 대사회로의 약진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지종 조동종 등 각 종단의 교양대설립, 동방·금강불교대등 교양대의 정규대 승격움직임, 각 종단별 활발한 국제교류, 소비자보호위원회 가동, 2002년 월드컵 유치운동, 태고보우스님 유적지 발굴 및 복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진흥회)의 발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은 조계종에 대한 감정과 정치적 구도하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붕 서경보스님의 입적에 따른 근거없는 '법왕쟁탈전'은 또다시 불교계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 조계종이 '불교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분야는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 창립,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창립 30주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 PC통신망인 동련연꽃 개설,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 창립 등 청소년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수련회 등에서 보여준 운영미숙은 옥의 티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문학의 해'를 기념해 불교계에서 1억3천만원이라는 높은 고료의 불교문학현상공모가 있었습니다. 8개 부문에 걸쳐 모집했는데 이러한 공모가 연례화된다면 좋은 불교문학이 나올 수 있는 큰 가교역할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올해 불교연극은 자못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27법난을 소재로 한 '뜰앞에 잣나무'는 관람한 불자들에게는 평이 좋았지만 많은 관객을 끌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 만해스님의 삶을 뮤지컬화한 '님의 침묵'과 원효스님의 구도의 삶을 마당극으로 엮은 '신새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조계종 주관으로 열린 '불교문화세미나'는 미술 문학 음악 성보관리 등 불교문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본 좋은 기회였습니다.

○… 지난 1월 교계에서는 최초로 전문미술관인 불일미술관이 사간동 법련사내에 개관됐습니다.

연극·전시등 문화포교 활발

○… 출판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7월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등의 악재에도 불구, 불서출판은 평년작 이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불서전문출판사보다는 일반대형 출판사의 활발한 불서 출간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 교계 출판사들은 불황 속에서도 〈한국불교전서〉(동대출판부) 12권 완간,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전69권, 민족사) 〈한국불교사찰사전〉(불교시대사) 출간 등 굵직한 기초학술서를 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 불교학술은 종전의 인물과 역사중심의 연구·토론에서 대 사회회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주류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불교학의 변화와 미래지향적 연구변화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연구자체가 초보수준이어서 그 깊이와 목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의 경우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석굴암 내부돔 균열, 경복궁내 불교문화재 반환요청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잇달았습니다. 내년이 '문화유산의 해'이니만큼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국TV 아카데미 신설

○… 정부의 종교편향적인 교육개혁정책으로 불교계는 커다란 시련을 맞은 해였습니다.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 설립움직임은 종교특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불교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우기 일산동 초등학교에서 모교사의 수업시간 선교문제는 일선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 중앙승가대학이 지난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태고종이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허가를 내 불교교육의 새 전기를 마련케 됐습니다.

○… 불교복지는 예년과 변함없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들로 일관돼 괄목할만한 성장은 없었

본지 선정 96년 불교계 10대 뉴스 화보

"정토로 가는 길 한 발 더 나섰네"

병자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 불교계는 유난히도 정토구현의 목소리를 높였던 해였다.

정월달, 김영삼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을 계기로 종교편향정책시정을 요구했다. 사찰환경파괴의 심각성도 극에 달했다. 급기야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난11월에 전국의 3천여명의 스님이 모여 사찰환경 수호를 대내외에 공포했다. 이러한 불교계의 외침은 내부를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자들의 피나는 수행과 땀으로 얼룩진 자비 실천행은 계속됐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었기에 올 한해도 불교는 한국의 민족종교임을 증명했다.

파사현정의 기치를 내건 불교도들은 참으로 장했다.

해를 넘기기에 앞서 이들 장한 불자들의 모습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고속철 경주도심우회 관철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화천리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92년 6월 건교부가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형산강 노선안을 제시한 이래 4년여에 걸친 노선논쟁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한국불교중단협의회와 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불교계 32개 단체와 한국고고학회 등 35개 시민·사회·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심통과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7만명의 도심통과반대 서명부를 첨부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은 5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도심통과 반대와 경주문화재 보존 촉구대회 모습.



불교관계법 개정 추진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12월11일 정각회소속의원 47명을 포함한 5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 불교관계법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등 3개 법안으로 △전통사찰보존구역 신설 △사찰의 권리구제조항 신설 △자연공원 사유지 이용료 지급 △사찰의 농지취득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제 불교교류 괄목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가 지난 9월10~11일 양일간 워커힐호텔에서 열린데 이어 동국대가 10월24~25일 양일간 개교 9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 국제불교대회는 세계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사찰환경훼손 결사반대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와 석굴암등 성보보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를 11월22일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찰환경파괴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 행정당국의 무원칙한 집행에 있다"고 지적하고 △불교관계법령 개정 △사찰훼손사업백지화 △해인골프장 오악산개발계획 백지화 △경주고속철도역사 시외곽설치 등을 결의했다.



YS정권 종교편향 '파문'

병자년이 열린 정월달 21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보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방영됐다. 특정종교 편향정책을 규탄하는 불교도들의 분노에 청와대가 사과했고 종교편향정책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감은사 나원리 사리출현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동탑)과 나원리 5층석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69과와 사리구가 1천3백여년만에 나투셨다. 조계종은 7월11일 덕수궁문화재관리국에서 광고, 보신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운식을 갖고 한달간 일반에 공개했다. 감은사지, 나원리사리는 새로운 사리구를 제작 재봉안했다.



대구불교방송 개국

불교대구방송 개국 2540(96).11.11 오전11시 진각문화회관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불교대구방송이 11월11일 개국했다. 주파수 94.5㎒ 호출부호 HLDI 출력 3㎾로 대구 경북일대에 하루 21시간의 방송을 내보내게 됐다.



잇단 사찰방화

지난 5월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등 강북구 일대의 연쇄적인 방화사건 이후 11월17일 쌍문동 법종사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사진은 본원정사 화재참상.



파라미타 창립

조계종 포교원은 금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조계종은 불교 청소년 단체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창립, 선재동자들의 마당을 마련했다. 파라미타는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무주야영장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등 미래불교의 희망으로 자리잡았다.



중앙승가대 정규대 승격

중앙승가대학이 지난 79년 학원설립을 인가받은 이후 17년만인 12월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를 개설중인 중앙승가대학은 김포학사로 이전한후 종과 대학원 사회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7학년도 동 산 불 교 대 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10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참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최경구교수(동국대)/차차석교수(동국대)/김영태교수(동국대)/오주스님(동국대)/장휘옥교수(전동국대)/임도스님(전포교원장)/인환스님(동국대교수)/권탄호교수(동국대)/장욱스님(전포교원장)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정토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종석스님(송계대교수)/상본스님(동국대교수)/종범스님(송계대교수)/서문갑교수(동국대)/권정삼법사상작업원장)/권기종교수(동국대)/정병조교수(동국대)/보국근교수(동국대)/최봉수교수(동국대)/박종안상계발원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1996년 12월 2일 ~ 1월 31일 입학금 10,000원	서류전형 (필기적 개별통보)	매주토요일 오후 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업이 어려운 직장인 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2월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732-1207)
(우 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733-0333) ○부산 : 봉서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문서점(257-0161)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㉖

要與妄想決一死戰 那知妄想卻拼不了
요여망상결일사전 나지망상극반불료
倒弄得吐血發狂
도롱득토혈발광
或有怕落空 那知早已生出鬼
혹유파나공 나지조이생출귀
空也空不掉 悟又悟不來
공야공불도 오우오불래

요컨대 망상과 더불어 한판 죽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니 어찌 망상이 떨어져 나가기는 커녕 토혈 방광에 이를 줄이나 알리오.

어떤 이들은 무기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나 어찌 이미 (망상의) 귀굴에 태어났음을 알겠는가.

공이 공이 아니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아니라.

或有將心求悟 那知求悟道想成佛 都是
혹유장심구오 나지구오도상성불 도시
箇大妄想
개대망상
砂非飯本 求到鼈年也 決定不得悟
사비반본 구도려년야 결정부득오
或有拙到一兩枝靜香的 便生歡喜
혹유졸도일양지정향적 변생환희
那僅是盲眼烏龜鑽木孔 偶然碰着
나근시맹안오구찬목공 우연팽착
不是實在功夫 歡喜竈早已 堵心了
부시실재공부 환희마조이 부심료
或有靜中覺得清清淨淨很好過
혹유정중각득청청정정한호과
動中又不行 因此避喧向寂
동중우불행 인차피훤향적
早作了動靜兩竈王的眷屬
조작료동정양마왕적권속

피하고 고요함을 따르려 한다.

이미 동정의 두 마왕의 권속이 되어 버린 것이다.

諸如此類很多很多
제여차류한다한다
初用功模不到路頭實在難
초용공모부도로두실재난
有覺無照 則散亂不能落堂
유각무조 칙산란불능락당
有照無覺 又坐在死水裏浸殺
유조무각 우좌재사수리침살

이러한 부류들은 많고도 많다.

처음 공부할 때 제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깨닫는 바는 있으나 비춤이 없으면 곧 산란하여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비춤은 있으되 깨우침이 없으면 또한 사수에 들어 앉은 것이라 빠져 죽게 된다.

用功雖說難 但摸到路頭又很易
용공수설난 단모도로두우한이
甚竅是初用心的易呢
심마시초용심적이니

"죽은 사람 매맞아도 꿈쩍하지 않듯 공부 어려우나 번뇌 놓아버리면 쉽다"

沒有甚竅巧 放下來便易
몰유심마교 방하래변이
放下箇甚竅 便是放下一切無明煩惱
방하개심마 변시방하일체무명번뇌
怎樣才可放下呢
즘양재가방하니

공부하기가 비록 어렵다하나 일단 길을 바로 들어서면 또한 아주 쉽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쉬움인가.

무슨 교묘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놓아 버리면 쉽다.

어떤 것을 놓는가. 문득 일체의 무명번뇌를 놓는 것이다.

어찌해야 놓아 버릴 수 있는가.

我們也送過往生的
아문야송과왕생적
爾試罵那死屍幾句 他也不動氣
이시독나사시기구 타야부동기
打他幾棒 他也不還手
타타기봉 타야불환수

우리들이 누구를 저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자. 그대가 시험삼아 시신에다 몇마디 욕을 퍼부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몇 방망이 때려보라. 그래도 대항치 않을 것이다.

어떤이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구하나 어찌 깨달음을 구하고 성불하리라는 생각이 다 른 망상임을 알겠는가.

모래로 밥을 지을 수 없으니 당나귀 해에 이르도록 (12지중에 나귀해가 없으니 '영원토록'의 뜻) 구해도 결정코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이는 공부중에 매화 향기같은 (한가닥 맑은) 경계에 부딪혀 문득 환희심에 젖지만

그것이 바로 눈 먼 거북이가 나무 구멍으로 목을 내밀듯이 우연히 부딪힌 경계인줄 어찌 알겠는가.

이는 실다운 공부가 아니라 환희마가 이미 마음에 달라 붙은 것이다.

어떤이는 고요한 중에는 청정하여 공부가 잘 나감을 느끼나 동적일 때는 그리되지 않으니 그로인해 시끄러운 걸

龍眼

★ 지 상 법 석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혜 경 스 님

〈무설정사 주지〉



약 력

- 1933년 전남 여수 生
- 서울 보성고, 서울대 사학과 졸업
- 한국불교 법화종 유지재단 상임이사
- 무량사 조실
- 동산불교대 경전연구원교수 법화연수원 원장
- 저서 〈법화경 입문〉 〈법화삼부경〉 〈법화경 총설〉 등 다수

사람들은 흔히 불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주의 참모습을 깨달은 부처님께서 아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시는 세계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니 이것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신도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무리라는 뜻이니 그 말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다고 하여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새겨서 믿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의해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은 바르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도의 대부분은 〈반야심경〉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러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불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는
세계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어렵게 느껴져요
무조건 믿고 실천하면
불교는 쉽습니다"

따져서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 되고 '절에는 다녀도 신도가 아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불교 신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지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 들인다는 뜻이요 받아 들였으면 오래도록 잊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 두고 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며 이로써 부처가 되는 길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이 됩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 "당신은 사람입니까"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묻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멍하니 바라다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과연 이에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불교란 자기를 찾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엇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어(禪語)를 이해하려는 데에 몰두하면서도 자기는 저쪽으로 밀어 놓고 다른 대상에서 선어를 이해하려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과는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님께서 천하를 주유하다가 노(魯)나라에 돌아 왔습니다. 선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 장공(莊公)이 공자를 기쁘게 할 생각으로 "저의 가신(家臣) 중의 한 사람이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落鄕)을 하게 되었는데 수레에다 짐을 싣고 사흘 동안이나 가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를 두고 왔으므로 깜짝 놀라 다시 되돌아 와서 부인을 찾아 돌아갔다고 합니다"고 말하자 보통 사람이면 하하 하고 웃어야 할 터인데도 공자는 웃기는커녕 "그 사람은 사흘 뒤에 부인을 찾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고도 많습니다. 아마도 고작 안다는 것이 자기 이름 석자 정도지요. 그러나 그 이름은 오직 일시적인 이름 즉 가명(假名)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일시적인 줄 모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름으로 착각하고 비석에 새겨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내가 누군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개나 소는 자기가 개인 줄도 모르고 소인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이 사람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 짐승 즉 축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을때 선뜻 그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자기는 좀 지나친 말일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양의 뉴톤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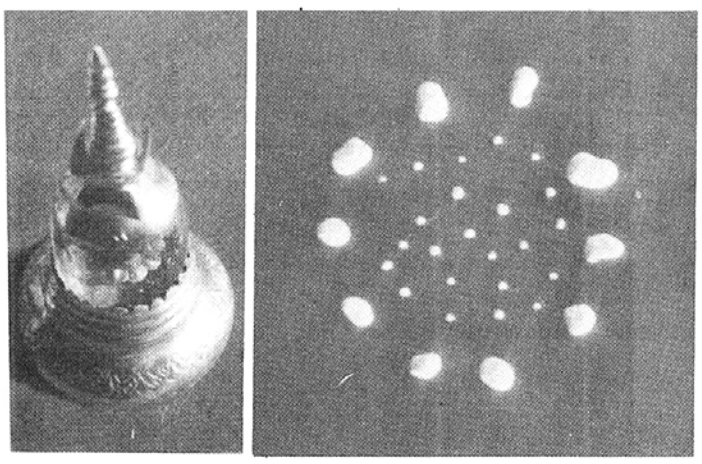
2500년만에 출현한

봉 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대법회 축

진제대선사께서 이곳에 절터를 잡아 대가람을 이루다 이 대사원을 창건함은 부처님의 심인법이 면면히 이어와 임제정맥을 바로 이은 향곡 선사의 선가풍을 널리 펴기 위함이라 일용에 무상심인법을 선양하니 제방에 운수납자와 단월들이 운집하여 대회상을 이루니 영산회상의 재현이요 불일이 더욱 빛남이라, 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2500년만에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해운정사에서 모시어 친견하게 된 사리는 미얀마(버마) 페야지방 슈지곤 대탑이 1974년 대지진때 무너져 그 탑 속에서 출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미얀마 판티나 주지스님께서 20여년간 소장하시던 것을 미얀마 위자나다스님께서 일본을 거쳐 해운정사로 모시고 오셔서 진제대선사께 봉헌 하시어 친견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남선녀께서는 이 거룩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시는 공덕으로 다생(多生)의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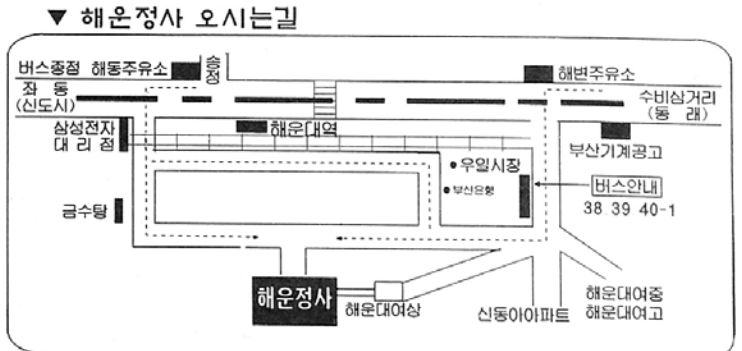
부처님 진신사리 법회가 끝나면 33척 11층의 진신사리탑을 조성하여 해운정사 도량에 모시게 됩니다.



▲ 미얀마 슈지곤 대탑에서 2500년만에 나투신 부처님 진신사리

■ 법 요 식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양력 1월 7일 오전 11시
■ 친견기간 :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양력 1월 7일부터 5월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친견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5번지 해운정사 대불전
■ 위 치 : 해운대역 뒷편 해운대여상 옆
■ 문의전화 : (051)746-2256/4812
■ 후 원 :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교계언론사

▼ 해운정사 오시는길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해운정사 조실 진제 분원장 명언 합장

지상법석

"보살이지요" 답하세요

"우리는 중생 건지려 사바에 온 願生 미운사람·가난한 사람부터 건지십시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눈을 번쩍 뜨고 외우려고 하면서도 부처님께서 이미 2천5백년전에 하신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딴전을 피운 셈이지요. 나는 12년 전에 〈법화경 입문〉이라는 책자를 법우출판사에서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불교'라고 정의하면서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 법우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책을 사서 펼쳐 들고 싸인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니 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 주제나 파악하라'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휘어 꺾어지게 보도록 길들어 왔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전도(顚倒)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휘어 꺾어지게 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구조를 '8식(八識)'이라 생각합니다. 8식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6식(六識)에 말나식과 아뢰야식을 더한 여덟 가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처음의 5식(五識)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에 의해 외계(外界)의 사물을 분별해 아는 마음이며 의(意)란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 등 순수하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이상의 6식은 무대 위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불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나식이란 무대 뒤에 있는 마음으로서 우리들이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과거-인간이 아직 무생물이었을때, 혹은 아메바와 같은 흡세포(單細胞)의 생물이었던 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부터 자기의 몸뚱이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온 의식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및 무생물까지도 통 털어서 말하므로 결국 모든 존재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아집(我執)'이 있어 그것이 갖가지의 미혹을 일으키는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번뇌도 여기에서 일어나며 여기에 눌러 붙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거나, 느꼈거나, 말한 것, 몸으로 한 행위 등 모든 경험을 모두 남김없이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이란 조상 대대로 경험한 것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마뱀은 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지도 않는데도 어쩐지 기분이 나쁘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몇 만년 전에 그러한 거대한 파충류가 지구상에 만연하여 인간의 조상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우리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벌레이든 물고기이든 새든 들짐승일지라도 모두 자기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자기들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본위의 행위나 또 어떤 잔인한 행위도 태연히 행합니다. 남이 모아 놓은 먹이를 가로채기도 하고 암컷을 빼앗기 위해 투쟁을 하기도하며 끝에 가서는 동료를 죽이기도 합니다. 두견새처럼 꾀꼬리 알을 둥지에서 밀어내고 그것에 자기의 알을 낳고 꾀꼬리의 어미에게 키우도록 하는 알미운 일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의 약 3십억년 동안 계속 이러한 일을 해 왔던 것이지요. 이것은 앞서 말한 말나식의 아집이 이렇게 시킨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남김없이 또 그 말나식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습(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을 우리는 무명(無名)이라 하며 이 무명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즉 무지(無知)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지의 행(行)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습이 된 것이며 이 습 때문에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착각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물은 실체(實體)가 없는 공성(空性)인데도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야부(般若部)의 모든 경전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사물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집착하지 말라.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인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지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믿어야만 구제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되는 것도 나요 구제받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몸뚱이는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참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佛子)임을 믿어야 합니다. 즉 부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길에다 내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몸뚱이 즉 육체의 아버지는 일시적인 아버지요 진정으로 영원한 아버지는 부처님이라는 이 믿기 어려운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장차 자기도 장성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菩薩)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된 것이니 이 순간부터 누가 묻기를 "당신은 누구냐"하면 즉시 "보살이지요"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만 했을 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에 머물렀을 뿐 보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나와는 아득히 먼 곳에 계신 줄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킨 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부처님 앞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라는 말을 소리 높이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이제부터 여러분은 불자 즉 부처님의 아들이니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몸뚱이에 치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그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바 세계에 온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중생을 건지기 위해 이 사바 세계에 지원(志願)해서 태어난 분들이니 여러분은 중생이 아니라 원생(願生)입니다.

가족을 건지고 이웃을 건지고 고운 사람보다 미운 사람부터 건지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부터 건지는 부처님의 큰 자비를 실천하는 대행자(代行者)들 입니다.

끝으로 불경에서 당지(當知) 즉 마땅히 알아라 하는 말은 바로 꼭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합니다.

"잘못된 '習' 버리고 또 버려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말나식에 붙은 '아집'이 미혹·번뇌 일으키는 뿌리

> "부처님 가르침 읽고 외우기만 할것이 아니라 목숨거는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8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55

마치는 글

물리학적 '심경' 접근 경전이해 도와

'반야의 세계' 이해차원 넘어 '믿음' 중요

반야심경은 부처의 차원에서 본 진리를 설한 것이다. 반면에 물리학은 오관으로 인식하고 분별지로 관단하는 보통사람들이 물질계를 탐구하여 이룩한 학문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물리학으로 경전이 말하는 세계를 설한다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의 입장에서 경전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각도에서 심경의 내용을 물리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수학과 물리학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지의 한계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계에 접한 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거나 없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믿음의 문제에 속하므로 말로써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시도한 글이 지금까지 말해온 '반야심경의 물리학적 해석'인데 졸열하여 경전의 내용을 훼손치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인식하고 관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나의 예로 윤회의 문제를 들 수가 있다. 이글의 첫회에서 '사람과 돼지는 같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 글을 마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같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연필을 예로 들겠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연필과 이 연필이 학생의 손안에 들려 글을 쓰고 있을때 두 연필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이것을 책상위에 놓으면 저것이요 저것을 들면 이것이다. 즉 저것이 변하여 이것이 되는 과정을 다 살펴서 알 수 있으면 저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 변하는 과정을 모를 때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한다. 변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합쳐지거나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는 불생불멸의 원리에 의해 생긴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다. 〈미란다왕문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한 방화범이 작은 불씨를 가져와 어느 집의 지붕위에 불을 질렀다. 이 불씨가 자라나 마을을 다 태운 후 방화범이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방화범은 무죄를 주장한다. 자기가 가져온 것은 작은 불씨이고 마을을 태운 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불씨가 자라나서 즉 변하여 마을을 태운 불이 된 것이니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판결을 경전은 내리고 있다. 옳은 판결이다. 물리학에서도 이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으로 판별한다.

물질의 기본을 이루는 소립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와 힘을 주고 받는 기본 상호작용이 네가지가 있지만 물리학자들은 한가지 종류의 소립자가 여러가지 상태로 나타난 것이 사람의 인식능력에 따라 여러가지 소립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자들은 네가지 기본상호작용도 한가지가 여러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물리학자들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확인되었고 물리학의 목표란 진공에서 나온 한가지 종류의 소립자와 반입자가 삼라만상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돼지와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이 변하여 온갖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리고 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윤회란 항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물리학과 반야심경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에 물리학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증명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물질세계만 본다면 물리학이 경전의 내용을 뒷바침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진공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소멸하며 진공에서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 색즉시공이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남은 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믿는다면 신비한 주문을 깊이 새겨담는 것 뿐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단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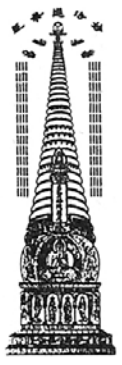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발계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천히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불교대하소설





누리는 낙(樂)

불이와 합두가 내려다보던 저 아래의 세상은 그들이 살던 세상인 남쪽 섬부주였다. 먼 곳은 슬픔을 낳는다. 그 슬픔을 특히 합두는 피하고싶지 않았다. 도리천의 천상에도 그런 슬픔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만을 내려다본 것만은 아니다. 수미산 자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고난 시력은 그런 수미산까지도 걸림지 않고 그들의 투시함으로써 섬부주 말고도 수미 4주의 세군데 큰 땅들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은 그런 수미 4주가 있는 금륜(金輪) 전체를 겹겹이 두르고 있는 일곱 산줄기와 여덟 바다까지도 살폈던 것이다. 그 산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만 8만유순이고 바다속에 잠겨있는 것이 8만유순인데 그 물 속의 보이지 않는 8만유순의 산도 슬쩍 보이는 것이었다.

금륜은 혹은 지륜(地輪)이라 한다. 말하자면 금륜이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곳은 어떤 우주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채와 같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 산이 금륜 위의 물과를 싸고 있는 철위산(鐵圍山)이다. 수미 4주의 가장 밖의 가장자리를 말고 있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변방을 지키는 산인 셈이다.

새 한마리, 짐승 한마리는 커녕 한 줌의 흙이나 돌 바위 따위도 없는 무쇠로 이루어진 솜막하는 산이다. 그 안쪽의 지변산(持邊山)에서도 36만3천2백88유순이나 되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인간이 살고있는 섬부주에서는 약 3억7만유순이나 되어 그 철위산이 어디에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 세계는 이런 무시무시한 산으로 일단 울을 치고 있는 셈이었다. 만약 합두가 그런 철위산까지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면 그동안 누렸던 슬픔의 행복 따위는 대번에 녹아버렸을 것이다.

그대신 형언할 길 없는 분노가 치솟아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철위산으로부터 바로 눈길을 옮긴 다음 섬부주 북쪽 거기에 있는 구로주를 보고 있었다.

그곳 뿐이 아니라 다른 3주 모두 저마다 본주(本洲)보다는 작은 2개의 중주(中洲)와 5백개의 소주(小洲)가 있다.

그 지형(地形)은 서로 달라 남주인 섬부주는 북쪽이 넓은데 북주인 구로주는 거의 네모꼴이었다. 사람들의 수명은 1천세인데 이것도 섬부주의 최대 8만세와 최소 10세 차이의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두는 불이가 불쑥 꺼낸 불만이 떠올랐다.

"어쩌자고… 뭘 하겠다고 이 세계는 이렇게 크단 말인가. 이 세계는 도무지 허황해서… 쯔쯔."

아직도 불이에게는 섬부주의 인간생활에 젖은 잔재가 남아 있음인가, 아니 그런 것이라면 합두에게도 남아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녀도 한 미디 내뱉은 적이 있었다.

"철위산보다 철위산 안의 그 짠물바다는 파도조차 워낙 거칠어서… 그보다는 여섯번째 바다의 향기 넘치는 바다(香水海)를 내려다 볼 때는 이곳의 내 코에까지 향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새삼스럽게 함께 깨달은 것이 있다.

금륜의 대지(大地)와 그 아래의 80만유순의 높이로 된 수륜(水輪)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래로 더 커다란 풍륜 1백60만유순의 높이에 이르러서는 다만 눈앞이 아찔할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그 풍륜까지가 물질계로 된 세계이고 그 아래로는 허허망망한 공륜(空輪)인데 그 공륜조차도 허공계의 입문(入門)이 아니던가.

"아아."

"아아."

그들은 도리천에서도 필요한 감탄사가 나왔다.

그런 뒤 저 아래 구로주를 눈여겨보았다. 그곳 인간이나 짐승들은 다 섬부주의 그것에 견주어질 수 없게 컸다. 아마도 섬부주의 어느 시기에 살고 있었던 공룡들과 같은 크기일 터이다.

소리도 우렁찼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를 낸 소리는 동쪽 거인국 승신주에까지 들려서 승신주 거인들의 잠을 깨운 나머지 승신주 거인들의 화를 돋구어 구로주 쪽으로 무서운 불바람을 불어댄 적도 있었다.

아니 구로주 일대는 언제나 그곳 사람들의 큰 소리와 그 메아리들이 서로 엉겨서 언제나 천둥소리나 지진이 땅속을 달려가는 것 같은 음향으로 가득하였다. 그 구로주를 둘러싼 바다는 비록 짙은 향기를 내뿜고는 있으나 그 파도소리는 다른 세상의 인간에게는 귀의 고막이 찢길 정도로 거센 것이었다.

천녀(天女)의 아름다움을 한껏 몸내는 합두가 슬슬 졸음이 왔으므로 더이상 그런 구로주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불이가 보라빛 비단구름자락 속의 그녀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안아서 그녀의 숙소로 갔다.

"차라리 눈 멀어라… 차라리 천개의 눈 다 멀어라. 도리천 선견성 한 가운데 계시는 제석천의 천개 눈이 멀어버리면 이 천상도 암흑세상이 되리라. 하늘 속의 지옥이라니…."

이런 넋두리가 입 안에서만 굴러나오다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잠기고 마는 것이었다. 끝내 불이는 합두의 몸 안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긴채 눈을 감았다.

"그렇지… 지난 생(生)일 때 돈황 막고굴 공부의 틈에 들은 것이 있지… 저 서역의 사막 족속들에게는 하늘속에 지옥이 있고 땅속 깊이 천당이 있다 하였지… 하늘에는 언제나 뜨거운 해가 있고 무서운 모래바람 투성이니 땅속이야말로 천당이었겠지… 그렇다면 이 도리천은 무슨 연유로 천당이 되었단 말인가?"

불이가 깨어난 것은 어느새 남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였다.

도리천 복판 재석천이 주재하고 있는 선견성 주위에는 언제나 노라면(嬝羅綿)이라는 7색 무지개빛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태풍이나 폭풍이 되는 일이란 없다. 도리천의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훈훈한 미풍이 쉬지 않고 불었다.

이런 한 세계의 편안함을 벗어나서 여러 세계의 대천세계 자체야말로 우주의 커다란 운동에 의해서 바람도 엄청나서 지상의 태풍 따위에 비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를 갑족같이 없애버리는 캄캄한 미궁 속의 기습으로 한 세계의 멸망과 다른 한 세계의 생성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겠다. 우주는 하나의 걷잡을 수 없는 운동, 끝없는 운동 그것이었다.

그런 우주란 한없는 공간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에 의해서 생성하고 유지하고 차츰 부서지고 그리하여 소멸되는 과정에서도 그 운동 자체는 단 한번도 그런 되풀이 속에 빠져들지 않는 우주의 도(道)로서 영구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우주 자체를 저만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안다. 마치 합두와 불이가 그들이 살았던 전전생의 세상을 그윽히 내려보며 그 멀고 먼 세상에 대한 한 가락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 무의지와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생성·유지·소멸속에 영구히 이어지는 道이니…

"야마천에 올라가고 싶다 했지요? 불이님."

"그렇다오. 그대도 함께 가지 않으려오?"

합두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보일듯 말듯한 사래질을 나타냈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누구 하나가 아니라 누구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저 아래 섬부주에서 올 사람들 말인가?"

"어쩌면 그들일지도 모르고 그들이 아닐지도 모른다오. … 기다리는 일이 참다운 도인줄 이제야 알았다오… 아니 그대처럼 가고 싶은 곳, 가야할 곳이 있는 것이야말로 도의 본마음이기도 하지만…."

"합두님 그래도 천상에 태어나더니 입이 수많은 꽃들처럼 잘도 피어나 그 향기로운 말들을 잘 토해내는구려."

"이런 일도 저 지상의 인간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오. 어떤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어떻게 세상일 수 있는가하고 하늘나라 따위를 부정하기 일쑤일 것이오."

"그러다가 이 곳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터이지. 어느 세상은 다른 세상, 다른 나라를 모르는 일로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천상 도리천에서 사는 천신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일로써의 자아발견을 넘어 자아의 발명(發明)과 같은 일이 거의 없는 정적(靜的)인 평화일 따름이다. 그래서 불이는 떠나고 싶어하는 것인가.

"야마천에 함께 가지 않으려오"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할…"

천녀들의 방은 실로 청정하였다.

너무 청정하다시피해서 비릿한 냄새가 날 정도였다.

불이가 그곳을 떠나려하자 합두가 졸음을 쫓아내고 눈을 떴다.

"벌써 가려는가요? 좀 있어도 돼요."

"……."

"어머나… 우리 불이님이 이 천상에 올라와서도 음양을 차별하는 중생노릇이니… 어여쁘셔라."

"……."

"다섯 음(音)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의 천상음은 바로 이곳 처녀들이 태어날 때의 소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 다섯음이나 실컷 몸에 담고 건너가시구려. 그대 불이님이여."

불이는 어느덧 합두의 손길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거의 제 정신을 놓아야 하였다. 천상에서의 천녀가 지닌 관능은 사바세계 섬부주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지극한 것이었다.

이 서린 구름의 용단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구름 용단의 한 자락이 잠을 깬 불이의 몸도 휘감고 있었다.

천상은 애욕이나 애욕을 초월하는 일이나 한가지로 진행됨으로써 굳이 누가 누구와의 접촉만을 갈망하는 일 따위는 거의 없다. 워낙 그런 색욕의 업보가 짙은 천남 천녀들의 그것이야 따를 수 없으나 여느 천신들은 늘 그런 열락과 쾌락 가운데 잠겨있고 늘 그런 쾌락 이상의 법열(法悅)에 젖어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저 아래 섬부주의 인간세계가 애욕에 불타거나 애욕으로 모진 병이 들어 죽거나 하는 처절함이 천상에서는 크게 결핍되었다. 애욕의 끄트머리에 겨우 바람 한 자락을 배설하는 일도 지상의 그 일에 견주면 싱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하늘나라의 그 용단과 같은 구름에 휘감긴 음양의 심신이 풍기고 있는 높은 관능은 지상의 농도와는 또다른 격조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림 · 조향숙

易理로 본
小說
三國志
(전3권)
『삼국지』와 『주역을』 동시에 읽는다.
삶의 지혜와 계획을 이 책 속에서 구하라
백운곡 著/신국판/전3권/값 각 5,000원

秘傳 四柱精說 白雲觀 著/신국판/값 5,000원
家庭作名法 金柏溪 著/신국판/값 3,500원
주역비전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5,000원
토정비법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7,000원
人生60진 秘法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7,000원
明堂全書 徐善繼·徐善述 著/韓松溪 譯/값 5,500원
韓國의 風水 村山智順 著/劉銀燁 譯/값 12,000원
風水地理學 里程表 金東奎 著/값 10,000원
전생을 봐 드립니다 안동민 著/신국판/값 4,500원
이 여자의 運命 이키 교쿠쇼 著/전후수 譯/값 4,500원
운명으로 본 人生 金謙東 著/신국판/값 7,000원

명문당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17-8
TEL:733-3039 · 734-4798 FAX:734-9209

運命小說
사주 궁합 살성 이야기
(전3권)
이야기로 풀어보는
신비의 사주 궁합 살성 이야기
吳恩重 著/신국판/전3권/값 각 3,500원
절찬 판매중
총공급처:명문당
TEL 733-3039.733-4748

新命理學 安成雄 著/신국판/값 10,000원
周易作名法 이상욱 著/신국판/값 10,000원
戊己解 金明濟 著/신국판/값 15,000원
四柱運命學의 精說 金謙東 著/값 9,000원
九宮祕訣 김상욱 著/신국판/값 9,000원
占卜術入門 全泰樹 編譯/신국판/값 7,000원
風水地理學 人子須知 金東奎 譯/값 35,000원
易學原理와 命理講義 曺誠佑 著/값 9,000원
傳統 風水地理 林錫寯 編著/신국판/값 7,000원
紫微斗數 韓重洙 著/신국판/값 6,000원
人生三八四爻 이해수 編著/신국판/값 5,000원
韓國地理總覽 池昌龍 著/신국판/값 10,000원

출판역사 70년 전통의 명문당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한의학의 名著 '方'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方
現代人의 健康秘典 (전 12권)
漢醫學을 집대성한 현대인의 가정상비서
한의학의 놀라운 효과와 처방을 영역별·체계적으로 묶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이 책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자각증상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증상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가정상비의 종합 漢方書이다.
특히 한방의 장점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自己診斷과 治療法 (Ⅰ) 症狀別 漢方療法
2 自己診斷과 治療法 (Ⅱ) 成人病과 民間療法
3 自己診斷과 治療法 (Ⅲ) 成人病과 民間療法
4 經絡과 經穴·鍼灸
5 丹·生活體操
6 스포츠 漢方과 救急處置法
7 漢方食餌療法
8 漢方料理
9 漢方回春長壽秘典
10 性生活과 漢方
11 한글 對譯 證脈·方藥合編
12 生藥圖鑑



金斗元 編著/신국판/값 각 10,000원

明文堂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8
TEL : 733-3039 FAX : 734-9209

현대불교신문 '96 사업 결산

데생용 반가상 중·고교 보급 민족얼 심기 '국민 공감'

사부대중 동참 '열의' …타종교인도 관심보여
총 565구좌 동참 …3백여학교 미술교재로
미술학원·사찰·복지관·개인 소장자 줄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 미(美)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데생용 미륵반가보살상(국보 제83호)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현대불교신문이 올 한 동안 전개한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연중캠페인과 맥을 같이한 이 운동은 총 585구좌가 동참돼 원형크기(2구좌)와 축소형으로 전국 306개 초·중·고대학교에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운동은 스님등 불자들은 물론 무종교 타종교인들까지도 참여하는 놀라운 관심을 보였다.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영수문체부장관 등 교계 정계 교육계 문화계 등 각계서 동참했다. 또한 가톨릭 수도원의 경우 '3박4일피정' 시간에 활용하는 등 종교를 넘어서 교육 문화 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이 운동의 취지와 뜻을 같이하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초등학교와 미술학원 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미술관 미술학원 타종교시설 불교복지관 개인소장 희망자등도 동참토록해 전달됐다.

○…최다 동참자는 윤용숙씨(여성문제연구회장)로 50구좌를 접수했다. 윤회장은 전체를 종실스님(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소장, 연화사 주지)에게 보냈고 종실스님은 충남 대전 지역의 21개 중·고·대학교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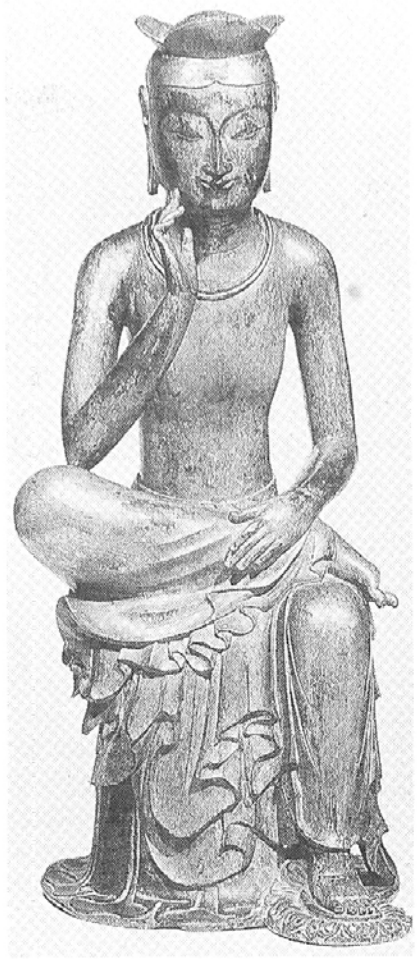
"좋은 운동이라 당연히 참여했습니다. 평소 종실스님께서 청소년포교에 원력이 크신 것을 알고 스님께 보내드려 골고루 학교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20구좌를 하고보니 반응이 너무 좋아 계속 10구좌 20구좌를 추가하게 됐습니다."이에 대해 종실스님은 "정체성 확립과 한국 전통미를 2세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값진 운동이라고 본다"며 흐뭇해 했다.

○…동참형태도 다양했다. 안양여고 동창생 5명은 기금을 모아 모교에 2구좌를 접수했다. 여기에는 졸업후 출가한 비구니스님도 동참했다. 또 유석초등학교학부모회는 회원 학부모들이 기금을 마련 2구좌를 학교에 전달했다.

○…이 운동의 사회적 반향도 컸다. 각 언론사는 국적있는 교육을 위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을 도왔다.

○…"불상을 보내주고난 후 무엇을 요구할지 걱정이 돼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동참자들의 지정학교에 수령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모 미술교사의 이 말은 우리사회에 '불신'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전국 수령학교 명단

가곡중(충북 단양시) 가곡중(강원 삼척) 갈마중(대전 서구) 감만여중(부산 남구) 강남중(서울 동작구) 강릉여고(강원 강릉시) 경기고(서울 강남구) 경남여고(부산 동구) 경남여중(부산 동구) 경원중(경남 창원) 경인여상(인천 서구) 계남중(전북 장수) 고성여고(경남 고성) 고흥여실(전남 고흥군) 고흥중(전남 고흥군) 과천고(경기 과천시) 광동여고(경기 의정부시) 광동중고(경기 남양주시) 광동중(경기 남양주시) 광명고(부산 영도구) 광주제일고(광주 북구) 구례여중(전남 구례군) 구지중(경북 달성) 군자공고(경기 시흥시) 귀인중(경기 안양) 근명여상(경기 안양) 금사중(부산 금정구) 금산고(충남 금산군) 금산상고(전북 김제군) 금산여고(충남 금산군) 금산종합고(전남 고흥군) 금산중(전북 김제군) 금산중(전남 고흥군) 금성고(부산 동구) 금성여상(경북 의성군) 금성중(부산 동구) 금성중(경북 의성군) 금왕공고(충북 음성군) 금정중(부산 금정구) 금지중(전북 남원) 김천고(경북 김천시) 김해여중(경남 김해) 남강중(서울 관악구) 남대전고(대전 중구) 남도여중(부산 영도구) 남성중(서울 동작구) 남양중(경남 사천시) 남여지상고(부산 영도구) 남중(인천 남구) 내동중(경남 김해) 내성중(부산 동래구) 능인고(대구 수성구) 능인고(대구 수성구) 능인중(대구 수성구) 단산고(충북 단양군) 단성중(충북 단양군) 단양공고(충북 단양군) 달서중(경북 달성) 당진여고(충남 당진군) 대곶중(경기 김포군) 대구북중(대구 북구) 대구중(대구 남구) 대덕여고(대전 유성) 대연고(부산 남구) 대전북고(대전 서구) 대전여고(대전 동구) 대전중(대전 중구) 대전고(대전 중구) 대전중앙고(대전 중구) 덕문여고(부산 수영구) 덕산중(서울 은평) 덕성여고(서울 종로구) 덕성여중(서울 종로구) 덕정중(경기 양주군) 동대부고(서울 동대문구) 동대부중(서울 동대문구) 동래여중(부산 금정구) 동래중(부산 동래구) 동로중(경북 문경시) 동명여고(서울 은평) 동산고(대전 중구) 동삼여중(부산 영도구) 동성초등(부산 진구) 동신중(부산 동래구) 동양공고(서울 구로구) 동주중(부산 사상구) 동호여상(부산 부산진구) 동호초등(강원 동해시) 둔포고(충남 아산시) 마산고(경남 마산시) 마산여고(경남 마산시) 마산제일고(경남 마산시) 매포중(충북 단양시) 명서중(경남 창원) 명성여고(서울 광진구) 명성여중(서울 광진구) 모현중(경기 용인) 목포고(전남 목포시) 무극중(충북 음성군) 묵호초등(강원 동해시) 문성고(경남 창원시) 문현여고(부산 남구) 미로중(강원 삼척) 반림중(경남 창원시) 배재대(대전 서구) 백산중(전북 부안군) 보문고(대전 동구) 봉화고(경북 봉화군) 봉화중(경북 봉화군) 부곡여중(부산 금정구) 부산고(부산 동구) 부산공예고교(부산 동구) 부산남고(부산 영도구) 부산남중(부산 영도구) 부산동여중(부산 동구) 부산산업고(부산 부산진구) 부산서중(부산 동구) 부산중(부산 동구) 부산진고교(부산 부산진구) 부산체고(부산 영도구) 부산해사고(부산 영도구) 부석중(경북 영풍) 부천여중(경기 부천) 부평서중(인천 북구) 부평여중(인천 북구) 부흥중(경기 안양) 북평고(강원 동해시) 북평중 (강원 동해시) 불광중(서울 은평) 사벌중(경북 상주) 산척중(충북 충주시) 삼랑중고(경기 강화군) 삼일여고 (경남 울산시) 삼척여고(강원 삼척시) 삼천포중(경남 사천시) 상도초등(경기 부천시) 상산고(전북 전주) 상인천여중(인천 남동구) 새일고(대전 대덕) 서대전고(대전 서구) 서대전여고(대전 서구) 서울고(서울 서초구) 서울공고(서울 동작구) 서울과학고(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중(서울 종로구) 서일고(대전 서구) 석교초등(충북 청주시) 선도중(충남 아산시) 선일여상(서울 은평) 선정여중(서울 은평) 선화여상(부산 동구) 선화여중(부산 동구) 선화예고(서울 광진) 설천중(전북 무주) 성광여고(경남 울산시) 성당중(전북 익산) 성모여고(대전 중구) 성신고(울산시) 성요셉여고(전남 강진군) 성전초등(부산 진구) 성환중(충남 천안) 수안보중(충북 충주시) 숙명여고(서울 강남구) 숙명여중(서울 강남구) 순창여중(전북 순창) 신라중(경북 경주) 신선중(부산 영도구) 신창중(충남 아산시) 신창초등(서울 도봉구) 신현여중(인천 서구) 안동고(경북 안동시) 안동서부초등(경북 안동군) 안동여고(경북 안동군) 안락중(부산 동래구) 안성여고(경기 안성군) 안성여중(경기 안성군) 아로고(경남 합천군) 양구여중(강원 양구) 연천중(서울 은평구) 연학초등(부산 진구) 연화여고(충남 아산시) 염산성지고(전남 영광군) 영도여고(부산 영도구) 영도여상(부산 영도구) 영도여중(부산 영도구) 영도중(부산 영도구) 영동중(서울 서초구) 영림중(서울 구로구) 영석고(경기 의정부시) 영인중(충남 아산시) 영종중(인천 중구) 영천중(경남 고성) 영춘중(충북 단양군) 예문여고(부산 남구) 예산여중(충남 예산) 예천중(경북 예천) 옥구중(전북 옥구) 온천여중(부산 동래구) 용남고(경남 사천시) 용남중(경남 사천시) 용산고(서울 용산구) 용산공고(서울 용산구) 용지중(전북 김제) 운봉중(전북 남원) 울산고(경남 울산시) 울산여고(경남 울산) 울산중(경남 울산시) 울산중앙고(경남 울산시) 울산중앙여고(경남 울산시) 울진여고(경북 울진군) 원삼초등(경기 용인) 원주여고(강원 원주시) 원통중(강원 인제) 유락여중(부산 동래구) 유석초등(서울 강서구) 유성여고(대전 유성) 은석초등(서울 동대문구) 을지초등(서울 노원구) 음봉중(충남 아산시) 음성고(충북 음성군) 의신중(전남 진도군) 의정부여고(경기 의정부시) 익산종고(전북 익산) 익산중(전북 익산시) 인제중(강원 인제) 인주중(충남 아산시) 인천여고(인천 중구) 인하사대부고(인천 남구) 일동유치원(경북 구미시) 장림여중(부산 사하구) 적상중(전북 무주) 전곡종합고(경기 연천군) 전남고(광주 북구) 전농여중(서울 동대문구) 전라고(전북 전주시) 전주중앙여고(전북 전주) 전포초등(부산 진구) 정광고(광주 광산구) 정광중(광주 광산구) 제일여중(대구 중구) 제주상고(제주) 제천고(충북 제천시) 제천여고(충북 제천시) 중경공전(대전 동구) 중대부속여고(서울 동작구) 중대부속초등(서울 동작구) 중동고(서울 강남구) 중앙고(경남 마산시) 중앙고(대전 중구) 중앙고(경남 창원시) 중앙고(서울 종로구) 중앙중(서울 종로구) 증산중(서울 은평) 진광중(강원 원주시) 진도여고(전남 진도군) 진도여중(전남 진도군) 진해여고(경남 진해) 창기중(충남 태안) 창신고(경남 마산시) 창원여고(경남 창원) 천북중(충남 보령) 천안고(충남 천안시) 천안공고(충남 천안시) 천안여고(충남 천안시) 청담고(경기 평택시) 청담종고(경기 평택시) 청담중(경기 평택시) 청란여고(대전 중구) 청양여상(충남 청양군) 청주상고(충북 청주시) 청주여고(충북 청주시) 청주중(충북 청주시) 초읍여중(부산 부산진구) 춘양중(경북 봉화군) 춘천고(강원 춘천시) 춘천기계공고(강원 춘천시) 춘천여고(강원 춘천시) 충남대(대전 유성구) 충암고(서울 은평) 충암중(서울 은평) 충주종합고(충북 충주시) 토월중(경남 창원) 평촌중(경기 안양) 포항여고(경북 포항시) 하동여고(경남 하동군) 하동중앙중(경남 하동중) 학산여중(부산 동래구) 학성고(경남 울산시) 한남대(대전 대덕) 한일고(충남 공주시) 해동고(부산 사하구) 해동중(부산 영도구) 해안중(강원 양구) 해운대고(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중(부산 해운대구) 현남중(강원 양양) 현풍고(대구 달성) 현풍여고(대구 달성) 현풍여중(경북 달성) 현풍여고(경북 달성) 혜성여고(서울 노원구) 호수돈여고(대전 중구) 홍제중(경남 밀양군) 화봉중(경남 울산시) 화원여고(대구 달성) 황도여중(경북 포항) 〈총 306개교〉

알려드립니다

1. 지정학교 우선으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 다수를 수령하기도 했으며 원형크기(2구좌)로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2. 지정학교에서 수령을 원치않을 경우 본사에서 다른 학교를 선정, 전달했습니다.
3. 서울대학교 등 8구좌는 발송 섭외중 입니다.
4. 미입금 신청구좌는 제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

5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을 맞아 '마음의 전화'(대표 도각스님)와 공동으로 가족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5월3일 어린이날 20가족 40여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호국성지 남한산성에서 역사를 배우고 자연환경보호 활동도 벌였다. 특히 이날 아빠들이 다수 동참해 가족사랑도 느끼는 자리가 됐다.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의 현장인솔 강의가 있었으며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이 후원했다. 현장을 걸으며 강의도 듣고 퀴즈로 학습을 재확인했던 이 행사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성과가 컸다.

가족과 함께 경주 남산 순례

올 한해 불교계는 환경보존과 사찰 수행환경 호지를 위한 관심과 인식이 특별히 고조됐다. 경주고속전철 노선 및 역사 건립과 관련해 경주 남산이 훼손위기에 처해지자 현대불교신문은 '민족혼의 성지 경주남산을 지키자'는 특별기획을 6회에 걸쳐 연재하고 애독자 가족을 초청 현장순례를 가졌다.

현대불교 부산. 대구지사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에는 2백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대부분 가족단위로 참가한 동참자들은 남산 전체가 그자체로 큰 법당임을 확인하고 성지답게 보존해야 하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소설 '수미산' 현장 간월암 문학기행

현대불교 인기 연재소설 '수미산'의 무대가 되는 간월암으로 작가 고은선생님과 현장기행을 떠났다.

이 행사는 교계에서는 최초로 기획된 문학기행으로 의미가 컸을 뿐만 아니라 테마법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음력 9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간월암에서 애독자 100여명은 인간 존재와 우주, 인연과 윤회, 만남과 깨달음에 대한 심야특강을 들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섬 자체가 절인 간월암 법당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튿날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 친견과 주지스님 법문을 경청했다.

불자 인터넷교육 실시

불교 정보화 세계화에 앞장서기를 자임하는 현대불교는 교계언론사 최초로 불자 인터넷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과 정보공유의 능력배양을 기했던 이 교육에는 5회에 걸쳐 170명이 했다. 참가자들 1/3이 스님으로 특히 스님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연령분포는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참증 여성이 70%를 차지했다. 비록 수강생들의 수준이 다양하기는 했으나 열띤 수업분위기였다는 것이 강사의 평이다.

시·공·사·의·불·교·책·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마흔 권의 책과 나눈 진지한 대화



시 한 편을 외워 봅니다.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밑줄 그으며 학술서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나 불교가 느껴집니다.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불교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 안에도 책 밖에도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는 숨어 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입니다

지은이 김호성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 / 값 18,000원

미라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 / 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 / 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시공 불교 총서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박태섭 옮김
2 붓다의 옛길
피야닷시 지음 / 한경수 옮김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4 불교 철학사
D J 칼루파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요한슨 지음 / 박태섭 옮김
6 유식입문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근간)

시공 불교 총서는 지혜의 길을 일깨우는 공경 소리입니다

한국불교 법맥찾기 '디딤돌'

구산선문 시리즈 첫권 '수미산문과 조동종' 출간

어록·금석문·선시등 문헌자료 총망라

조동종 성립·전개등 사상적 흐름 조명

불교영상회보사(대표 최석환)의 야심작인 '구산선문 시리즈'가 첫선을 보였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가 엮고 조동정 종정 운파스님이 감수한 〈수미산문과 조동종〉이 3년만에 출간됐다.

구산선문 시리즈 8권중 첫번째로 간행된 이 책은 조동종문(曹洞宗門)의 법맥을 분석하고 9산선문의 하나인 수미산파의 전개과정과 일연 김시습 등의 유필을 통해 우리나라 조동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잊혀져 왔던 조동종의 핵심어록과 금석문 선시 등이 문헌자료로 망라되어 이름만 전해오던 조동종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획기적인 연구서가 될 전망이다.

수미산문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인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중국 조동선의 시조인 석두희천의 사상과 일대기를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중국의 동산양개와 운거도응, 신라의 이엄진철을 중심으로 조동선의 성립과 전개를 사상적으로 규명했다. 제3장은 입당선승의 조동선 전래를, 제4장은 우리나라 구산선문 및 수미산문의 성립과 전개를 서술했다. 제5장은 수미산문 관련 논문을 정리했으며, 제6장은 '동산양개선사 행록' 등 5편의 어록과 '조동종구류백가일원비' 등 7편의 선시, '중편조동오위서' 등 3권의 조동선 핵심어록,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문' 등 5편의 금석문을 실었다.

우리나라의 조동종은 신라 말엽에 이엄진철(利嚴眞徹; 866~932)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 운거도응 스님의 문하에서 수선(修禪)하여 심인을 받고 귀국, 고려 태조 5년(932)에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 내정리 수미산에 광조사(廣照寺)를 창건하고 묵조선풍을 드날리면서 비롯됐다. 신라 구산선문 중 맨 마지막으로 들어 온 선문이면서도 유일한 묵조(默照) 선맥이었다.

수미산문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개조 이엄진철로부터 보리사의 대경, 정토사의 법경, 무위사의 선각왕사 등은 4무외대사로 불린 태조 왕건의 왕사들로서 고려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운거도응 문하에서 수선하였으며 그 선맥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일연스님은 조동선의 요체인 〈중편조동오위〉를 남겨 조동선의 부흥을 도모했으며 김시습은 〈중편조동오위요해〉를 지어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불교영상회보사는 〈동리산문과 염불선〉 〈굴산산문의 논종선〉 〈가지산문과 조계선종〉 〈성주산문과 남종선〉 〈봉림산문의 선풍〉 〈사자산문과 남종선법〉 〈희양산문의 선풍〉 등 나머지 7권(寶祖山門은 자료 부족으로 제외)을 잇달아 발간하고 비디오 테이프로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구산선문에 대한 단편적인 논문은 나왔으나 이처럼 본격적인 연구서가 시리즈로 기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 禪의 원류인 나말여초 9산문(山門)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이번 간행작업은 우리불교의 바른 법맥을 찾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90쪽, 1만5천원



김재경 기자

출판소식

문체부 추천불서 8종

문화체육부(장관 김영수)는 '제29회 추천도서'로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펴낸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등 9개분야 1백11종 2백6권을 선정했다.

이중 불교관련서는 △종교철학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김광식) 〈새로운 불교 해석〉(김진) △문학 〈한용운〉(최동호) △예술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이동주) 〈한국미술사 자료집성 4, 5〉(진홍섭) △과학기술 〈한국의 건축〉(윤장섭) △만화 〈파이팅 손오공〉(이정문) △총류 〈한국사 논저 분류 총목〉(김동수) 등 8종이다.

'올해의 좋은책 10' 선정

전국출판노조협의회는 '96 올해의 좋은 책 10'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는 〈나무야 나무야〉(신영복)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유홍준) 〈목 긴 사나이〉(박재동)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한국역사연구회)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박영규)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연어〉(안도현) 〈자유주의 이후〉(이매뉴얼 윌러스틴) 〈공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서정오) 〈새로쓰는 결혼이야기 1,2〉(또하나의 문화 동인들) 등이다.

화제의 책



선사들의 깨달음통해 본 禪의 정신

복하고, 대승불교의 헌신적이면서도 강인한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禪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본격 선입문서다.

禪이야기 일지 지음

일지스님의 〈禪 이야기〉는 '사상적으로서의 사회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우리시대의 오해를 극

제1부 '아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에서는 달마에서 성철에 이르는 한·중·일 선사들의 깨달음이 담긴 선이야기를 130여 가지로 정선해 선의 근본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에서는 선과 선종 및 선종사, 선종의 큰 흐름을 이루는 5家7宗은 물론 공안, 간화선과 묵조선, 선종의 수도규칙으로서의 청규, 할과 방, 선사들의 오도송, 선종의 총림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제3부에서는 〈육조단경〉 〈조당집〉 〈전등록〉 〈벽암록〉 등 선의 대표적인 문헌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이뤄져 있다. 〈운주사, 8천원〉

새로나온 책...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박삼중 편저)=재소자 교화에 매진하고 있는 자비사 주지 삼중스님이 들려주는 고승이야기. 한·중·일 3국 고승들의 일화를 통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고 禪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태일 6천5백원〉

▲일면불월면불(고목 저)=부산 함박산 불심암 주지 고목스님이 마조스님 어록에 나오는 '日面佛月面佛'을 화두삼아 풀어낸 법어집. 마조스님은 항상 "지금 그대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그 모든 작용은 바로 그대의 본래 성품이며 본래 마음이다"고 했다. 즉 이 마음이 부처이고, 일용(日用)이 곧 부처의 작용이라 하였다. 〈홍법원 7천원〉







▲한국미의 탐구(김원룡 저)=한국미술사·고고학의 기틀을 다진 故 삼불(三佛) 김원룡(1922~1993) 서울대교수의 역작. 고인의 서거 3주기를 추모, 초판이 출간된 지 18년만에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도판을 대폭 교체하고 '백제 불상조각 연구' 〈소동파집(蘇東坡集)〉에 보이는 '고려미술품' 등 2편의 글을 새로 추가했다. 〈열화당 1만원〉

▲내안의 나와 마주 앉아(이혜옥 저)=제7회 월간 〈한국시〉(대표 김해성) 문학상 시조부문 대상 수상작.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는 구도적 시와 일상과 자연에 대한 친화적 시 108편을 모았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그녀의 시에는 자연과 사물을 인간의 종속물로 보지 않고 생명 그 자체로 여기는 불교적 생명관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솔바람 5천5백원〉

'여시아문' 선정 올해의 베스트불서 10

올해의 최고 인기불서는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으로 나타났다. 책방 여시아문(02-737-0695)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불서 10'에 따르면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과 〈기도〉가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1, 2위는 물론 3위 〈삶은 苦가 아니다〉, 5위 〈그 마음을 바쳐라〉, 6위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등 5권의 법어집이 베스트불서에 선정된 것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 이밖에 수상집이 2권(4, 8위), 소설 1권(7위), 입문서 1권(9위), 경전해설서 1권(10위)이 선정됐다. 〈편집자 주〉

생활속의 기도법 (1위)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뤄낼 수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을 통해 기도성취의 원리와 방법,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기도〉의 속편. 〈일타스님 저, 효림, 3천5백원〉

기도 (2위)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 저자 자신과 도반, 선배, 제자, 신도들이 체험한 기도 영험담과 전래되는 수많은 영험담 중에서 감명깊은 20여편을 함께 수록한 기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각 이야기마다 올바른 기도법과 간략한 해설을 덧붙였다.〈일타스님 저, 효림, 5천원〉

삶은 苦가 아니다 (3위)



경전에 갇힌 불교가 아닌 살아숨쉬는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중생교화에 진력하고 있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어집. 진실로부터 절로 터져나오는 스님의 법어는 재가불자나 일반 생활인들에게까지 참지혜의 눈을 뜨게 한다. 스님은 불교가 어렵고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통해 자연스레 들어나는 진리'임을 보여준다. 〈혜원스님 엮음, 여시아문, 6천원〉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위)



가슴을 적시는 짧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속에서 마침내 부처님 세상을 엿보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1~4 전권을 통해 펼쳐져 있다. 어려운 낱말을 빌리지 않은 간결한 글들이 마음밭을 가꾸는 여유를 만끽하게 한다. 1~3권은 생활속의 불교를 다룬 수필집, 4권은 고려시대 회정스님과 보덕각시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우학스님 저, 좋은인연, 각권 6천원〉

그 마음을 바쳐라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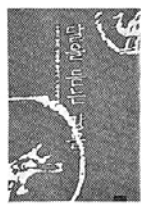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인 저자가 〈닦는 마음 밝은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 이어 펴낸 수행지침서. 전문 수행인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쉽게 공감하며 생활중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마음을 바쳐라'는 책 제목은 일상의 모든 일에 한마음을 닦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 〈김재웅 저, 용화, 7천5백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6위)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인 33분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한 곳에 담았다. 조계종 종정 및 전 종정, 원로회의 의장, 5대 총림의 방장스님과 오랜 세월 수행에만 전념해 온 원로스님들의 육성을 한 자리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선지식 33분이 동시대를 호흡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촌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끊임없이 소생케 하는 청정한 에너지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여시아문, 7천원〉

달을 듣는 강물 (7위)



평생을 일하는 수행자로 살면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그림자도 남기지 않을만큼 묵묵히 수행했던 수월스님의 일대기. 29세에 출가해 33세에 깨달음을 성취한 뒤 74세에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순간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온 수월스님의 삶의 궤적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고 법문임을 저자 특유의 담백하고 진솔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김진태 저, 해냄, 6천5백원〉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8위)



강원도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지 5년, 법정스님이 〈버리고 떠나기〉 이후 수행의 길을 청량한 필치로 그렸다. 스님은 특유의 산방한담과 함께 자연 중심의 생명사상을 맑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온갖 질병과 환경 위기를 불러들인 현대인들이 이제는 산야대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동양사상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정스님 저, 샘터, 7천원〉

불교입문 (9위)



조계종 포교원이 펴낸 최초의 통일된 불교입문서. 불교입문서로는 드물게 베스트불서에 오른 이 책은 교학보다는 믿음과 行을 강조한 것이 특징. 불교의식과 문화의 통일을 목적으로 불자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간명하게 정리했으며 시대적인 흐름을 담기 위해 민족 통일, 환경문제, 봉사활동, 성보의 이해와 보존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계종포교원 저, 조계종, 3천5백원〉

금강경 강의 (10위)



통도사·범어사 강주를 역임, 〈화엄경〉을 완역하는 등 활발한 강의와 집필을 계속중인 무비스님의 〈금강경〉 해설서. 저자는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인생·삼라만상의 실상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의 진실을 밝혔다"고 말한다. 〈금강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그 깨달음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다. 94년 12월 출간이래 6쇄를 거듭하고 있다. 〈무비스님 저, 불광, 5천5백원〉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최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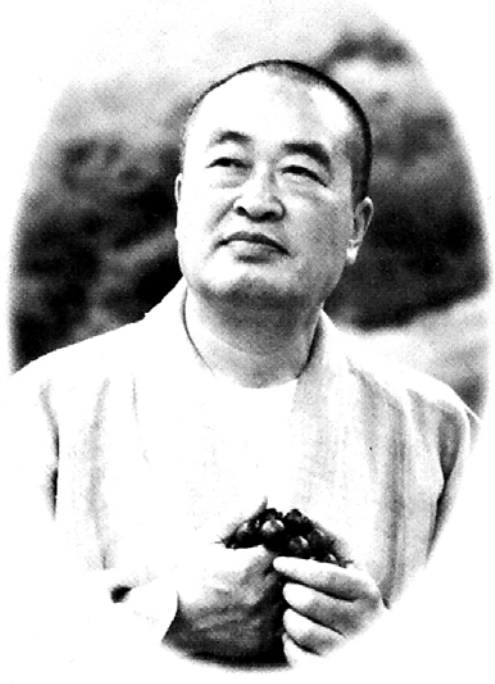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앓아지는 월급봉투, 가벼워지는 호주머니,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랑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 신국판/296면/값 6,500원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였던 틀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바람일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닫혀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15쇄
걸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목탁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걸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숱한 삶의 고비길에서 버살 아닌 보살들을 만나며,
꺾이는 마음의 합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성불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줌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24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전2권/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제1회 '불교문학상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불교문학 가능성 확인"

서춘기씨등 11명 '영예'… 8개부문 451편 심사 1월15일 시상…단행본 계획

총 1억3천만원이라는 불교계 초유의 상금이 걸린 제1회 불교문학 현상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96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이 불교문학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총 451편이 응모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16일 결과가 발표됐다.

△장편소설부문에는 이상우씨(41)의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당선작) △중·단편소설부문 정과스님(통영 용화사)의 '사문'(가작) △시 부문에 서춘기씨(39)의 '부처꽃 필 무렵'(당선작·1면 전재) 정이랑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작)' △시조부문 백정분씨(37)의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에서' △희곡 부문 박상률씨(37)의 '풍경소리'(당선작) △시나리오 부문 전보경씨(35)의 '아버지의 인연'(가작) 유승희씨(25)의 '돌꾼'(가작) △평론부문 송희복씨(39)의 '생명문학의 불교적 가능성'(가작) 이선이씨(28)의 '공의 미학과 생명연대의 꿈'(가작) △동화부문에 이가을씨(55)의 '오대산이 품은 아이'(당선작) 등이 각각 당선과 가작의 영예를 안았다.

홍기삼 조정래(장편소설) 김성동 조남현(중·단편소설) 고은 오세영(시) 오현스님 이근배(시조) 차범석 서연호(희곡) 장선우 이정하(시나리오) 김재홍 권영민(평론) 김녹촌 신현득 조장희(동화) 등이 각각 심사를 맡았다.

시상식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조계종 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거행되며 작품들은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심사평 대부분의 응모작들의 수준이 높아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었다. 불교적 세계인식의 문학적 형상화의 완성도가 전반적인 심사기준이었다. 일부 투고작품들의 경향은 불교에 관한 지식 나열, 불교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의존 또는 교훈적 설교 노출, 악이 선으로 전환하는 중에 불교의 왜곡이나 변질 등의 4가지 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문학의 형식과 종교적 내용이 탁월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불교문학도 기본적으로는 문학작품으로서의 형상성을 갖추고난 후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 17명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경숙 기자


◇서춘기씨


◇백정분씨


◇박상률씨


◇이가을씨

"깨달음 사회화 접목위해 노력"

장편소설 당선자 이상우씨



"깨달음의 사회화야말로 불교와 문학이 지향해야 할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진지함이 희화화되어 버리고 저급한 익살과 공허가 지배하는 시대풍토에서 가슴을 두드리는 목탁이 되어 더욱 용맹정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문학상을 제정한 조계종 총무원과 뽑아주신 심사위원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문학 현상공모 장편소설부문에서 '비어있는 행복'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이상우씨. '비어있는 행복'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진흙속의 견성이라 부를만한 조종환의 삶은 불가속에서나 찾아지는 인물이지 다른 세계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인간형이다. 화자인 나(강기수)의 이야기로부터 점차 주인공인 조종환의 삶으로 서사의 중심을 옮겨가는 이야기 전개방식이 호감을 갖게 한다. 그것은 화자가 체험하는 일상사로부터 완만한 속도로 불교적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이며 불교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극찬하고 있다.

종립대인 동국대 국문과를 나온 그는 불교정신의 문학화를 추구한 이번 현상공모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 오랫동안 구상한 작품의 집필에 착수, 10개월만에 완성했다. "굳이 스님이나 절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만으로 불교문학이 될 수 있는 수준높은 불교문학창작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5천만원이라는 큰 상금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물음에는 "사사롭게 쓰기보다는 내 작품의 주제와 걸맞는 유익한 곳에 쓰겠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의식과 작법무 상관관계 분석"

법현스님 '작법무연구 - 상주권공재 중심' 발표

불교의식에 있어 범패가 음성공양이라면 작법무는 신업공양(身業供養)으로 범패와 더불어 재의식을 보다 장엄하게 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나비무(타주무 포함) 바라무 법고무 등 작법무에 대해서는 용어 등 체계적인 정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동국대 강사)이 최근 발간된 〈한국무용연구〉 제14집에 '작법무연구-상주권공재를 중심으로'를 발표, 작법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불교의식의 여러 재가운데 의식구성뿐 아니라 작법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를 중심으로 작법무 유형의 종류와 사용되는 의식과 작법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

〈석문의범〉 및 〈봉원사요집〉을 저본으로 하고 재 진행과 작법무에 관한 고증은 송암스님(영산재 기능 보유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이번 논문에 따르면 상주권공재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신중퇴공 시식 봉송으로 구성되지만 작법무가 사용되는 의식은 시련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임을 볼때 작법무는 불보살을 모셔오거나 예경할때 주로 행해지는 의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삼남태의 발견으로 16종이 된 나비무가 상주권공재에서는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작법 삼남태 등 8종이 사용되고 바라무에는 천수마라 내림게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화의재진언바라 등 6종이 사용되었으며 법고무에는 1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법현스님은 "나비무에서 사용된 8가지 작법중 정례작법 삼남태 운심게작법 등은 현재 무(舞)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단한 소리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전승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놓고 있다. 〈숙〉


◇불교작법무인 나비무와 법고무는 상주권공재에서 시련과 상단권공 등에 사용되었다.

'삼남태' 추가 발견
나비무작법 16종 주장

"알고 찾고 가꾸기" 32건 추진

내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 확정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지난 18일 '문화유산의 해' 선포식(97년 1월21일, 세종문화회관) 등 내년 한 해동안 추진할 제반 사업계획을 밝혔다. 조직위가 밝힌 사업계획은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전통 문화유산 현대적 계승 등의 목표하에 △문화유산 알기·찾기·가꾸기 사업 △문화유산 관행 및 제도연구 △문화유산 홍보 집중 전개 등으로,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 개최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유산 알기 사업에 '문화유산의 해 기념 공연' 등 13건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문화유산 찾기 사업으로 '전통문화 재현' 등 7건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12건 등 32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도표 참조〉

또 주제 표어로는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와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로 정해졌다.

'97 문화유산의 해

◇인동당초 무늬와 곡옥형태를 토대로 도안한 '97 문화유산의 해 공식 휘장(디자인·안상수).

〈표〉 '97 문화유산의 해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사 업 개 요	일정
유적답사	테마관광코스(유적·인물·발굴지·보수공사 현장 등) 개발 보급	2월~12월
대학박물관주관 문화유적 순례	대학박물관별로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 발굴현장 등 문화유적 순례코스 개발	2월~12월
문화재연구 학술대회	국내외 고고학 전문가 초청, 우리 고고학의 발전도모 및 연구분위기 조성	9월
매장문화재 발굴강좌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기초이론으로부터 관계법령·현장실습 등 강의	3월~11월
문화유산 해외소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번역, 해외 유관기관에 배포	10월
문화유산관련 도서발간	문화유산 소재 책자 발간 매장문화재 발굴 화보 제작	8월~11월
문화유산의 해 기념전시	세계문화유산 순회 사진전 박물관 소장 문화유산 특별전 문화유적 발굴사진전	2월~12월
문화유산의 해 기념공연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10월~11월
문화유산 찾기	알려지지 않은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찾아 중요한 것은 지정 보존	1월~12월
문화유산관련 도서발간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1월~12월
문화유산 보존관련 세미나	문화유산 보호 학술세미나	6월~9월
지정문화재 영인본 제작보급	지정문화재 중 유일본을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	10월

화제의 전시회

日고승묵적전 현담스님 참가


◇현담스님作 '십일면 관음보살상'.

현담스님(일본 오오사카 해동선원 주지)이 일본 오오사카 우메다 다이마루백화점 11층 아트갤러리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고승묵적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묵적전에는 히라오까 쇼카이스님(나라 동대사 방장) 구라나이 구라우찌 쇼도스님(경도 묘심사 방장) 모리 세이항스님(경도 청수사 방장) 다케다 우끼슈스님(경도 건인사 방장) 등 일본불교계에서 추앙받고 있는 고승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현담스님은 '미륵반가사유상' '11면관음보살상' '금강역사상' 등 여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심우방 생활자기展
30일까지 두인화랑서

불자도예가 심우방씨의 생활자기展이 오는 30일까지 수송동 두인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연꽃 산 등 그림을 넣은 분청 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인도배경 구도소설 두편 '화제'

김진 '하늘로 가는 강' 죽음·환생·윤회등 다뤄
강석경 '세상의 별은…' 구원향해 떠나는 자매 그려

삶의 원형이 깃들어 있는 영원한 그리움의 땅 인도. 부처님의 고향이며 불가사의한 그곳은 문인들이 즐겨 문학의 소재로 삼는 곳이다. 인도를 배경으로 윤회와 환생, 구원의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친 두권의 구도소설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진(41)씨가 최근 펴낸 장편소설 '하늘로 가는 강'(문학동네 刊)은 억겁의 인연과 환생 윤회에 대한 인간의 소망과 갈등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마치 생의 피륙을 짜듯 촘촘히 엮어나간 작품이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재를 갠지즈강에 뿌려 그의 영혼이나마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한 젊은이의 방황과 비명횡사한 아내의 허망한 소멸을 부정하고 그 환생을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사연이 인도의 바라나시를 배경으로 담담하게 그려진다. 오래전에 잊혀진 만남으로 또는 지나간 시절의 흐린 인연으로 묶여진 등장인물들은 거친 생의 사막을 가로질러 '문명의 여백'이라는 인도를 헤매면서 생과 사 그이후의 끝, 궁극의 한 정점을 향해 겁없이 질주하고 환생의 실체를 증거해 보고자 갈구한다.

작가 김씨는 본명이 김재진으로 KBS와 불교방송 프로듀서를 거쳐 지난해부터 전업작가로 나서고 있다.

'숲속의 방' '가까운 골짜기' 등 문제성 높은 베스트셀러로 호평받은 바 있는 소설가 강석경씨(45) 역시 인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 '세상의 별은 다, 라시에 뜬다'(살림 刊)를 내놓았다.

이 소설은 강씨의 7년만의 장편이자 인도체험의 완결판. 내용은 첫 결혼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두 자매가 각자 새로운 삶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라사는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는 갈수 없는 곳. 모든 인간들의 정신의 고향과 같은 상징적인 주도(主都), 잃어버린 이상향 라사에의 동경을 통해 진정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일상의 폭력과 그 폭력에 지친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향해 떠나는 가를 그리고 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간디·타고르·네루의 시구 등은 인도의 깊은 정신세계를 전해주며 인도의 사회관습과 이국적인 풍광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소설의 재미를 더해준다.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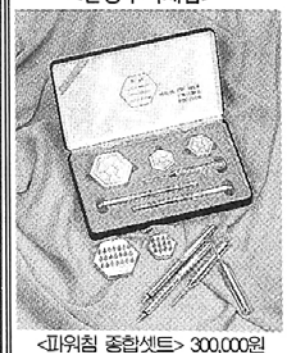
구 직
30대 중반으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 남자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겸 총무로 일할 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보시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렴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전화 0351-41-1152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주십시오.
박창제 합장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범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백의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막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요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파워침 종합셋트> 300,000원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합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땡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합니까?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研究會파워-침 研究學會
전화문의 02) 455- 6944(대)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척추교정 · 지압시술 및 개인지도
좌골신경통
TEL :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금매 양어장
■ 어종 : 송어
■ 위치 : 강원도 춘성군
■ 금액 : 2억
연락처 02)448-6562
홍순주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 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工 합장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 · 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남 도우는 삶 실천했을 뿐"

팔순 이종대씨 '청호공덕원' 설립 50억 쾌척

5년전부터 동대생에 장학금
"육영·사회복지에 여생 바칠 터"

"춥고 배고프던 어린시절 돈을 벌면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했던 다짐을 실천했을 뿐입니다"고 말하는 은퇴사업가 이종대옹(80). 평생 모은 50억원대의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내놓아 세밑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종로구 궁정동에서 현재 40년된 허름한 2층 슬래이브 집에서 부인 김영숙씨(70)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이옹은 제원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의논해 제주도 감귤농장 7천평(25억원 상당)과 경남 부곡온천에 있는 나대지 6백평(20억원 상당), 현금 5억원 등 모두 50억원의 재산을 자신의 법명을 딴 사회복지재단 '청호 공덕원'에 쾌척했다. 이로써 제주도에는 장애인시설을 마련하고, 서울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지하1층 지상 7층규모의 어린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 육영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마지막 여생을 바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옹은 5년전에도 자신이 창건한 청호불교문화재단에 재산을 기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기도 했다.

5세때 조실부모한 이옹은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큰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자 불과 12살때 평양 기성의학전문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돈벌이'에 뛰어들어 일본인가게 점원생활, 외판원 등을 해 면서기 60개월치 월급인 6백원을 벌었다. 그러나 선배에게 돈을 몽땅 사기당해 북만주, 충북 진천 등을 전전하며 장돌뱅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옹은 그러나 해방이후 동미화학공사 한국유지개발주식회사 등을 세워 화학비누원료무역과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됐지요. 제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이 돈이 어렵고 못 배운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도필선 기자

진각종 종헌종법 개정 '거듭나기'

포교원 신설…총인·통리원장 임기 변화
납골당·수련원등 사회복지사업 추진도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이 현대사회에 맞는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미래사회를 향한 불교포교에 돛을 올렸다.

지난 12.13일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개정된 종헌종법은 △교육과 포교강화 △종단기구개편 △종의회의원 겸직금지 △주요보직임기확정 △대사회사업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다.

기구개편안에서는 포교원을 신설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적극나섬은 물론 중국 미국등 해외포교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원에 종합교육연구원을 신설 교육전문가를 상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양한 포교교육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종회에서는 종헌종법에 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을 삽입하여 종회의원의 각 원장 및 부장겸직금지로 통리원 교육원 종의회 사업원등 종권분립을 실현키로 했다.

종단 주요보직 임기도 정신적 스승인 총인의 경우 75세이하로 제한하여 종신제에서 연임제로 하고, 3년연임의 통리원장 임기가 4년단임제, 각 심인당 주교임기도 10년으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지역포교 중심으로 종단활성화방안을 추진해온 진각종은 앞으로 납골당 수련원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일반사회포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사회적운동으로 창교시절부터 전개해온 참회를 통한 사회의식개혁운동을 발판삼아 통일을 위한 연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적 업보를 벗는 자주평화통일을 전개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각종 총무부장 진산정사는 "진기 50년을 맞아 교화에 진력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제2의 창종정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도약의 의지를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구현해 한국불교발전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동안거 실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월 19일까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1백30여 사찰에서 일제히 병자년 신도동안거를 실시한다.

이번 신도동안거는 구인사 1만여명과 전국 각말사 4만여명 등 총 5만여신도가 참석중이다.

금강대 신입생 모집

천태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이 '97년도 신입생 3백70명을 모집한다.

지난 11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한 금강불교대학은 천태학과 불교학과 교법사과정등에 오는 2월 10일까지 서울,부산 금강불교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천태종 사찰에서 접수받는다.

(02) 464-3306



◇서봉대종사 종단장이 지난 15일 봉원사에서 거행됐다.

태고종 서봉대종사 영결식

태고종은 지난 15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종정 보성스님 승정 덕암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인곡스님 종회의장 금담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혜일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 정토회장 법륜스님 박찬주 주양자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봉대종사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거행했다. 〈본지 107호 참조〉

종정 보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바가 즐겁다하여도 오래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요 이세상 볼 것이 많다해도 무고안온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감만 못하다"며 "뭇새들이 해가지려면 한 숲에 들어 잠을 자지만 날 밝은 아침이면 제각각 흩어져 날아가듯이 만법귀일의 고향에서 아미타부처님을 뵙고 안락을 누리시라"라고 말했다.

경전에 나타난 태아 생명관

10일 불교자원봉사련 낙태 세미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불교계 최초로 낙태관련 불교태아생명수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낙태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마련을 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교계 내부의 낙태반대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은 불교경론에 나타난 태아관과 인공유산의 문제에 대해 묘주스님(동국대 교수)과 김무득씨(불지연 시민대학 학장) 발제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자·난자·識의 결합

불교에서는 임신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가 한 장소에 같이 있고, 둘다 병이 없어야 하며, 부모가 둘다 자식을 가질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삼사화합설(三事和合說)을 〈증일아함경 제12권〉과 〈불설포태경〉 등 불교경전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또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70권에는 삼사화합설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보다 어머니의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신수장 27, p363중) 이것은 수태가 성립 된 후부터 출산까지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중절은 살인죄"

〈대정신수대장경〉 제 2권 〈잡아함경〉 제19경의 제508경부터 제 20경의 제 519경까지의 총 12경은 살인죄에 대한 세존과 마하목련존자의 문답으로, 임공적 임신중절에 대한 살인죄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들 경(經)에서 부처님은 "임신중절의 행위가 이미 태어난 자기자식을 살해하는 일이니 죄중의 최고의 죄가 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믿고 새겨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tn BBS 송년 특집 '다채'

'영상으로 보는 96불교' '회향하는 삶' 등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연말을 맞아 한해를 정리하는 송년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불교TV는 오는 31일 송년특집 '영상으로 보는 96불교'를 오전10시20분에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 고속철도 반대운동,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등 그 어느해보다도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96년을 점검하고 지난 1년동안에 벌어진 교계의 크고 작은 사건과 화제를 영상을 통해 되돌아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31일 오전11시10분에는 지난 1년동안 교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관심사를 묶어 결산하는 송년좌담 '96 불교계 결산'을 방영한다.

불교방송은 29일 오전10시 5분 월운스님의 송년특집 라디오법회 '회향하는 삶'을, 30일과 31일 오후5시10분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는 '96년을 빛낸 불자들'을 방송한다. 그리고 31일 밤11시5분에는 96년을 마감하고 97년을 맞이하는 '가는해 오는해'를 방송할 계획이다.

불교전화부 2월 발간

불교방송 조사자료부가 내년 2월 불교전화부를 제작, 무료배포한다.

불교전화번호부는 불교계의 각종 법인단체와 신행단체, 주요 임의단체, 불교용품 및 불교관련 취급점, 불자기업, 전국사찰, 포교당, 포교원등 1만여건의 내용을 담게 된다.

'불교방송 가족통장' 약정

불교방송과 한일은행이 지난 19일 한일은행 본점 16층 회의실에서 '불교방송가족통장' 약정식을 가졌다.

이 통장의 개설에 따라 앞으로 이 통장에 가입한 신도 및 후원자가 예금을 거래하면 예금주에게는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그 이자와는 별로도 한일은행만의 부담으로 세우 예금이자의 25%를, 장기성예금 가입시에는 약정금리 의의 0.25%의 보너스 금리를 불교방송명의 통장에 자동으로 성금 출연하게 돼 불교방송의 재정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108배 1백일 결사모임' 구성

조계종 재가종무원 40여명 참가 신심고취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이 '108배 1백일 결사모임'을 구성해 화제.

이 모임을 제안한 전형근 교육원 교육과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신행활동을 반성하고, 신앙심 고취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재가종무원들의 108배 결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모임에는 70여명의 재가종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108배를 올리며 1백일째 되는 날에 회향한다. 결제모임은 1월 3일 오전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포교원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신선하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은 신행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처님일에 헌신하고 보살행을 펼치는 재가 종무원상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탁소리

말로만 청소년포교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불사라는 대명제로 출범했던 '불교청소년의 해'가 지난 18일로 회향됐다.

이번 회향식은 출범당시 표방했던 조직화, 교육자료개발의 과학화 자료화, 문화사업의 체계화 예술화, 안정적인 운영은 공허한 메아리가 컸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특별한 성과없이 또다른 시작을 알리는 의식제고의 단계였다.

포교원측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에 이어 제2의 청소년단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출범해 한국청소년 불교의 큰 흐름을 세웠고 교계 처음으로 3천여명의 청소년들을 참석시켜 대규모 연합캠프를 개최해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의 설립이나 캠프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포교의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파라미타 연합캠프에서 드러난 프로그램 운영의 미숙은 관계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운영미숙으로 인해 파라미타 캠프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은 '재미없고 지루했다' 내년에도 이같은 행사에 참석하겠냐는 질문에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할 캠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전국규모의 청소년 단체 구성을 놓고 청교련과의 불협화음 이사진들의 관심부족, 조직사업 장기화 등은 하루빨리 제고해야 될 과제다.

청소년포교를 위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라는 단체가 설립된 이상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읊조리는 포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닿는 포교사업을 전개한다면 청소년포교는 가속화될 것이다.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후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 제96-16268호

●규격 : 높이 27cm×직경 33cm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강화약쑥 100일분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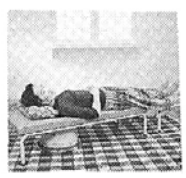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방침〉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대, 당등의 질환〉



③〈골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기죽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 (02) 강남:553-0261~2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종로:747-7033 반포:597-7581 영등포:782-6080
경기지역: 평택:(0333)856-6856 분당:(0347)66-0049 용인:(0335)36-4294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2900
대구(053) 남 구:474-2828 달서구:635-9734
대전(042) 중구:222-4936 서 구:534-4211 동구:253-6446 둔 산:487-7245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김해:(0525)24-4871 진주:(0591)43-4655
경북지역 울산:(0522)74-7536 포항 : 0562)82-3155~6 안동:(0571)53-0229
광주(062): 동구:228-8544 서구:523-1540
강원도 강릉(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0416)856-6856 예산(0458)33-3208 서산(0455)63-0457 아산(0418)43-3510
충북지역 청주(0431)273-2684 제천(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현불뉴스

불교관계법 차기국회로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가 의원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이 18일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회됨에 따라 차기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지난 11일 정각회원 57명이 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등 3개법안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있다.

관람료사찰 2곳 지정

문화재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는 17일 임시회의를 갖고 화순 운주사와 담양 용흥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한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면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송광사주지 현고스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광주 자비의전화 개설

광주 자비의전화가 오는 27일부터 개설돼 청소년을 위한 무료전화상담을 실시한다.

광주 자비의전화는 청소년들의 고뇌 갈등 방황 소외 등을 상담한다.

(062)234-3330

낙동강 대청결운동

참여자치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정각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상임부회장 월강스님)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불자들이 지난 15일 낙동강 살리기 운동 및 대청결운동을 벌였다.

이날 불자들은 인간띠잇기에 이어 낙동강 대청결운동을 벌여 낙동강 일대 쓰레기를 수거했다.

승가회 안기부법 반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정부와 신한국당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려는 개악움직임은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부산 몰운복지관 개관

사단법인 불국토(이사장 정관)에서 위탁운영하게 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년)이 20일 개관식을 가졌다.

몰운복지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가정, 노인, 재가복지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앞을 못보는 대운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도헌이가 지난 추석에는 용돈을 모아 시각장애용 지팡이를 선물했다.

"목욕시키며 '한 몸' 느껴요"

도헌이네 보살행 '세밑 훈훈'

윤경옥(단이슬어린이집 원장·41)보살은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어린이집 차량을 가지고 두송사회복지관으로 향한다. 두송복지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목욕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윤경옥씨는 올 2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 김종진(경찰공무원·42)씨와 아들 도헌(나동초등학교 4년)이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특히 남편은 윤보살이 차량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대운(시각장애인·25)씨를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데리고 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김대운씨는 부모없이 어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여동생도 정신지체아여서 바깥 활동이 거의 없이 살고있다.

김종진씨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대운씨를 목욕탕과 이발소에 데려가고 드라이브도 시켜주는 등 여지껏 해보지 못했던 사회경험들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을 둔 때문인지 도헌이의 마음 씀씀이도 예사롭지 않다.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대운씨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곤 하던 도헌이가 이번 추석에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대운씨의 시각장애용 지팡이를 선물했다. 도헌이는 "삼촌을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과 함께 잘 도와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스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온가족 장애인돕기 매달 복지관 방문

윤보살은 자신이 거지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곤 하던 친정아버지의 자비행을 보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배웠듯이 도헌이에게 자신도 행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싶단다.

윤보살과 도헌이는 이번에 관음사에서 실시한 4박5일 동안의 대만 불교재단 자재병원의 자원봉사활동 견학과 호스피스교육에도 참여했다. 윤보살은 "대만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불교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부족과 참여자의 수적인 부족을 절감했다"며 사람들의 참여부족을 안타까워했다.

김종진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을 못하는 것 같다"며 "처음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간날 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다"고 했다.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보람이나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김씨부부와 아픈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와주고 싶다는 아들 도헌이의 환한 웃음이 불국토를 앞당기고 있음에 분명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여학생 포교대책 '발등의 불'

김형중법사 中3 755명 조사 男 21.5% 女12.7%만 '불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3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불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형중교법사(명성여고)는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소재 14개 중학교 7백55명의 고입선발고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분포조사한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불자는 21.5%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불자는 12.7%로 남여의 편차가 지난해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개신교(40%)와 천주교(14.7%)가 전체학생수의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형중법사는 "교회나 성당은 여학생을 위한 선교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는 반면 불교는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녀 전체비율에 있어서도 불교 18%, 개신교 35%, 천주교 11.6%, 기타 및 무교 35.2%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0%였던 기타 및 무교가 35.2%로 감소돼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결의문 채택

13일 불교지도자 워크숍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보경당에서 개최된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샵에서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환경관련 불교지도자 80여명은 이날 △탐욕에서 비롯된 환경파괴적 삶에 대한 참회 △범종단차원의 전문인력 조직 △지속적인 교육과 대안마련을 위한 연대강화 △국립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대정부건의 등 4개항을 결의한 뒤 실천과제로서 △사찰환경실태 및 보존지침서 제작 △도서, 컴퓨터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교환경교육의 실시 △(가칭)불교환경교서 발표 등을 제시했다.

'108인 이사제' 검토 중앙신도회 추진단

월주 총무원장은 지난 18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각급신도회구성 추진실무단(단장 혜창 총무부장)으로부터 신도회 구성현황과 추진일정을 보고받았다.

추진실무단은 재정부분에 대해서 "1인 중심의 재정출연은 운영상 전횡을 낳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1년간 일정액을 분담하는 '108인 재정이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초파일 전까지 창립할 계획이며 말사신도회는 현재 433개 사찰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포교사제 지지" 78%

조계종, 포교사 603명 설문

"지위·역할만족" 26.5%

종단 행·재정지원 필요

포교사들은 교구본사 또는 재적사찰의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포교활동시 사찰과의 협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이 지난 10월 하반기 포교사연수 기간중 포교사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포교사들은 교구본사 또는 재적사찰을 정해 활동하는 신도지도자로 정의하는 것에 77.7%(매우 동의 23.1%, 대체로 동의 54.6%)가 동의해 상임포교사제도의 정착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포교활동시 교구본사 또는 사찰과의 협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45.3%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주 협의한다는 15.6%에 그쳤다. 이에따라 상임포교사제도 실시를 위한 종단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들의 지위와 역할 만족도는 26.5%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계종도로서의 소속감도 '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에 그쳤다. 이는 그동안 종단에서 포교사를 방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포교사의 직업분포는 자영업(26.7%)이 가장 높으며, 가정주부(25.0%) 일반사무직(10.5%) 공무원(10.0%) 판매·서비스직(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1.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이 인근 건물공사로 인해 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위기에 처해있다.

연등국제불교회관 '붕괴위기'

선재미술관 공사로 균열·누수등 지반침하

서울 종로구 연등국제불교회관(관장 원명)이 인근에 건설중인 선재미술관공사로 인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최근 선재미술관의 지하굴착공사로 기둥과 벽, 지붕, 문틀 등에 1~3㎝가량의 균열과 지하보일러실에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사중인 선재미술관은 연등국제불교회관과 1m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하굴착공사가 계속될 경우 붕괴의 조짐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우건설측이 최근 연등국제불교회관 건물 지하 15m에 2.5m 간격으로 철근을 넣어 큰크리트로 양생시키는 어스앵커(Earth anchor)라는 공법의 지반침하방지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 대해 연등국제불교회관은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인 선재미술관은 건축면적 7백60여평에 지하 지상 각 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지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안전진단을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학교 종교교육 부당"

교육정책불교대책위

정부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국·공립학교 종교교육금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대책위는 일부 기독교계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학교 종교교육금지' 조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국·공립학교 종교교육실시는 부당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암스님 추모비 내년 5월 건립

월정문도회 탄허문집 발간… 위원장 혜거스님

조계종 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16일 제9차 한암문도회(대표 인허)를 열고 한암스님추모비를 건립키로 결의했다. 상원사 부도전에 건립되는 추모비는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문도회는 탄허스님 탑비와 경월스님 부도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문도회는 탄허스님문집 발간위원회(위원장 혜거)를 구성하고 제1차 탄허스님 문집발간에 들어갔다.

한편 월정사는 이날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97년 예산승인, 등해 삼화사 법당붕괴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쌍용양회의 석회석채취로 삼화사 법당이 붕괴되고있다"며 "석회석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삼화사를 복원하라"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흥원 새해예산 56억여원

새 이사에 송석구총장…배명인씨 佛放이사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56억 4천여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진흥원은 교육연수 및 학술진흥 포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정운동도 내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계속 전개키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이기영박사의 유고에 따라 후임이사에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을 선임했으며, 불교방송 이사에 배명인 이사를 추천키로 했다.

마음 '나' 하나 죽는다면

'나' 하나 죽는다면 아무것도 볼것자리가 없어 욕심을 낸것도 착을 둔것도, 남을 원망하고 싸우고 할 것도 없다. '나'를 봉바쿠에 그대로 내동댕이 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든지 내가 몽개지든지 상관않고 무조건 내맡겨야만 업식을 항복받을 수 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불교달력

"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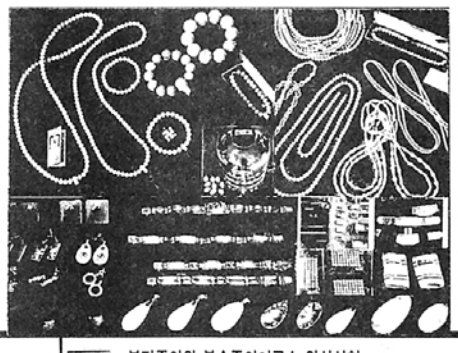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폐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8.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93.2.17)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한국신문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선 힘,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108염주(小) ₩320,000 목걸이₩150,000
단주(大27알) ₩250,000 단주(고무줄)₩70,000
명상용氣(기) 방석₩120,000 반지 ₩45,000
■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욱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롯 본 점 合 掌

무진장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불교 교리 대강좌

■ 법사 : 무진장스님
■ 대상 : 청·장년 및 일반신도
■ 일시 : 97년 1월10일 ~3월 28일(3개월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조계사 內)

금강경 대강좌

■ 법사 : 무진장스님
■ 대상 : 청·장년 및 일반신도(교재제공)
■ 일시 : 현재강의중
■ 장소 :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조계사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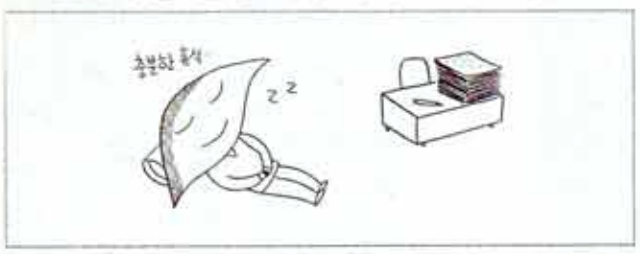
■ 문의전화 :(02)730-1250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국청회

건강백세 ㉟

간 ②

혹사된 간 보호 휴식·영양공급이 처방
인진쑥등 한방요법 해독 효과 입증



만성 간염으로 이행된 경우 부실한 간조직에 지방분이 침착되어 일어나는 지방간이나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진행되는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드물게는 만성간염 환자중 다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바닷가 모래밭을 거니는 중 발가락 상처를 통해 침범된 세균에 저항치 못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도 습열(濕熱)등 외사를 통해 간에 병변을 일으킨다고 적시하였는데 바이러스를 알지 못하던 시절의 표현이지만 외사는 결국 지금의 외부감염을 포괄하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는 간을 혹사하지 말고 편히 쉬게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지름길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며칠간 술을 마셨을 경우 하루 이틀은 완전한 무주일(無酒日)로 정해서 철저하게 쉬게해야 하고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해 간조직을 보강해 줘야한다.

간장병 환자의 경우 한약복용을 금기시하는 대부분의 양의사들의 노파심은 간을 편히 쉬게 해줘야 함때에 보(補)한다고 복용하는 한약제가 행여 간장에 부담을 주어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다. 당연한 걱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적절한 한약투약을 통해 간장의 해독과 소화배설 등 신진대사를 도와주면서 그 기능회복을 기다려 가볍게 보간을 시켜 준다. 그래서 막연하기만 했던 간염환자들에게 탁효의 기쁨을 안겨주는 임상의 실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의 금기에서 벗어나 올바른 투약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방에서 널리 사용하는 인진(茵蔯)쑥은 간조직을 수렴(收斂)시키고 우수한 이뇨작용으로 단방(單方) 또는 처방에 혼입하여 효험을 보는이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속히 고치겠다는 욕심에서 독소가 함유된 약재나 약효검증이 불분명한 단방약재나 불합리한 식이요법등이 영양불량과 불균형을 일이켜 급격히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방분을 제거한 육식등 단백질 공급이 간장 치료의 중요한 요체중의 하나임을 알아야한다.

지나친 녹즙만의 사용을 고집하다 보면 영양불균형으로 돌이킬 수 없이 악돼 버릴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서 영양공급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지관(將軍之官)으로 보아 정신생리를 주도하는 장기로 설명하였고 모든 모려(謀慮) 즉 생각하는 일을 담당하며 발생지관으로 보아 인체생명현상의 가장 기초인 단백질과 생명발생의 신비한 기전을 예시하였고 혈액을 관장한다고 표현하여 인체의 영양과 신경기능까지도 깊이 간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신적인 부담이 많을 때 '간장이 다 녹는다'라는 속담은 간의 기능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해준다.

결론적으로 간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괴곤하지 않게 해 줘야한다. 모든 감염 특히 공해요소에서 지켜내야 한다. 스트레스에 짜들린 생활을 폭음을 통해서 탈출해 보려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우리 모두 간장회복 및 보호운동을 벌여야 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아들 부처님 ⑤·〈끝〉

주부신행담



그림 · 이준석

"오지 않으면 가면 되는것을"
아들의 삐뚤어진 행동에서
자녀사랑과 불사의 기쁨을 배웠다

책을 찾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었다. 나는 문고를 열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책을 빌려다 볼 것이란 상상을 했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겨울방학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학이 아니었다. 물론 승호도 방학이라고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몇과목의 과외학원을 다녔지만 나름대로 놀 시간도 많았고 지딴에는 책도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놀 바쁜 것이었고 책에대한 관심도 많지 않았다. 학교공부 외주의 방학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승호만은 열린 생각과 열린 행동으로 자라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역시 절일을 하며 얻은 귀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이 많이 찾지 않다보니 문고를 늘려가는 일이나 관리하는 일이 신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청소년문고 운영을 기념하는 법회가 치뤄지고 일주일후가 겨울방학이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부터는 문고가 썰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함께 뛰었던 사춘들도 이굉계 저굉계를 대며 등한시 하기 시작했고 나는 눈보라처럼 덮쳐오는 절망감을 힘겹게 감당해야 했다.

"부처님, 제가 너무 허황된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믿었는데 결과는 이처럼 허망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답답한 이 가슴을 어찌던 풀단 말입니까. 부처님…"

엉엉 울고 싶었다. 평일에는 오전에 두시간 가량 나가 책을 정리하고 주말과 일요일엔 순번제로 문고를 관리하기로 했으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만치 문고의 운영은 썰렁했다. 빌려가는 학생도 거의 없고 들어 오는 도서도 없었다.

말하자면 '개점휴업'이었다. 그러나 개점휴업의 나날 속에서 나는 오기라면 오기일 것이고 작심이라면 새로운 작심일 그런 마음이 생겼다. 바로 '사필귀정'의 도리였다. 일은 반드시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집안 살림을 챙기며 절을 다니며 문고일로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괄자에 없는 다이어트까지 한 셈이었는데 남들에게는 그런 내 모습이 안스럽게 보였던가보다.

"엄마, 너무 실망하지마. 요새 누가 그렇게 책을 읽는줄 알아? 공부하기도 바쁜데 말야. 그래도 절에서 책을 빌려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조금씩 좋아질거야."

승호의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내가 절망해 있는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일주일에 서너명의 학생과 서너명의 신도가 책을 빌려가는 실적으로 새해가 시작됐다. 나는 새해를 시작하는 아침에 부처님께 기도를 했다.

"부처님 제가 성급했습니다. 일만 벌이면 다 될 것이란 우매한 자만심을 버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생각치 않고 제 자신만의 충족을 위해 일한 것을 이제야 뉘우칩니다. 부처님…"

정말 나는 내가 청소년 문고를 만들고자 발원한 순간부터의 몇달간 나를 위해 일한 것이지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각은 부끄러움일 수 밖에 없었다. 부처님은 '그래 다 안다.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 염려 말고 다시 뛰어라' 하시며 나를 내려다 보시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찌푸린 얼굴을 하면 아무런 일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부터 밝아지기를 거듭거듭 마음 먹었다. 그리고 스님께 그간의 심정을 다 털어 놓았다. 빙긋 웃으시던 스님의 여유로운 표정에서 나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책을 모아두고 학생들이 읽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어른스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는 지혜를 찾아 봐야지요."

그렇게 쉬운 답을 구하기 위해 나는 절망도 해야했고 오기를 부리고 부처님께 응석을 부렸던가. 다가오지 않으면 다가 가면 되는 것을. 다시 용기를 내어 함께 일했던 보살들과 회의를 갖고 독후감 발표대회, 독서 토론회, 어머니 독서모임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아들녀석의 삐뚤어진 행동에서 1년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진정한 자녀 사랑과 불사의 기쁨을 배웠다.

이 법 성 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㊻

MUNISUTTA
*muni (빠알리어)성인 · 현자

♦ From acquaintanceship arises fear, form houselife arises defilement; the houseless state, freedom from acquaintanceship - this is indeed the view of a Muni.

친교(親交)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니 가정을 일구지 않고 친교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바로 성인의 생각이다.

♦ Whosoever, after having uprooted his arisen, would not replant it and would not allow it to grow up, him the solitarily wandering they call a Muni; such a great isi has seen the state of peace.

이미 돋아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번뇌를 가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선인은 평안의 경지를 본 것이다.

♦ Having considered the causes having discerned the seed, let him not allow any desire for it; such a Muni who sees the end of birth and destruction, after leaving reasoning behind, does not enter the number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피어 그 종자를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을 멸해 구경을 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 He who has penetrated all the resting-places does not wish for any of them, - such a Muni indeed, free from covetousness and free from greediness, strives no longer, for he has reached the other shore.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피안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acquaintanceship (n) 아는 사람, 면식, 알고 있음
*defilement (n) 더럽힘, 오염
*uproot (v) 뿌리째 뽑다, 근절하다
*solitarily (a) 홀로 쓸쓸하게
*discern (v) 식별하다, 투명하게 인식하다

오중욱 기자

btn

감동과 흥분의 대서사시 대하 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15개



4년여에 걸친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1부 만다라에 새긴 염원
2부 해발 5천미터의 기도
3부 마른땅에 핀 연꽃
4부 세월의 영고 대지의 성쇠
5부 신선하게 불어 온 개혁바람
6부 환생하는 링포체
7부 등신불의 비밀
8부 천백억으로 나투는 화신
9부 옴 마니 반메 훔
10부 금강승으로 가는 길
11부 신심으로 빚은 예술
12부 자비의 얼굴
13부 신비의 사원들
14부 거룩한 믿음의 도구
15부 진리의 보고
16부 신앙으로 얻은 지혜
17부 피안으로 가는 지혜
18부 존경받는 스승들
19부 구도의 길
20부 하얀가사의 라마승
21부 여성수도자의 삶
22부 포교를 위한 축제
23부 칼라차크라
24부 춤추는 사람들
25부 세시풍속
26부 유 월 제
27부 티베트인의 의식세계
28부 아! 라사
29부 중원에 핀 만다라
30부 세계의 심장

지혜의 빛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구입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140 다보빌딩
TEL: (02) 3272-0781~5 FAX: (02) 716-0341